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0 호 5월 20일

평양 근로자사 1963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第 10 호 (224)

1963년 5월 (하)

차 례

간부들의 혁명적 단련……………………………………………(2)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와 일'군들의
실무 교양…………………………………………………양 형섭(7)

당 사업 지도에서 모범 창조가 가지는 의의………강 정종(12)

당 정책 관철의 첫 공정은 인식 단계이다…………리 승록(17)

사회주의 분배 원칙과 《작업반 점수제》…김 성태(21)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 도입에서
얻은 몇 가지 경험……………………………………박 창권(27)

각본은 워싱톤에서, 무대는 서울……………………김 경현(34)

미제는 라오스 문제의 배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현 명준(39)

—서적 해제—

자력 갱생하는 혁명 정신의 훌륭한 교과서…………윤 창주(44)

간부들의 혁명적 단련

간부들은 당의 핵심 력량이며 혁명 과업 수행에서의 지휘 성원들이다. 당의 정책과 로선이 수립된 다음에 그의 정확한 실현 여부는 전적으로 간부들의 조직 사업 여하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창건 첫 날부터 간부 대렬을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최대의 관심을 돌려 왔으며 가능한 모든 대책들을 취하여 왔다.

김 일성 동지는 벌써 해방 직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 민족을 부흥시키고 우리 나라를 민주주의적 독립 국가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문화인, 예술인, 과학자, 기술자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자기 나라를 능히 건설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민족 간부가 요구됩니다.》(선집 1955년 판, 제 1 권, 218 페지)

간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당의 정확한 방침이 철저히 집행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간부 대렬이 급속히 장성하였으며 간부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당의 로선을 견결히 고수하고 당 정책 관철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바쳐 투쟁하는 붉은 지휘관으로 자라났다.

당에 의하여 교양되고 실천에서 단련된 우리 일'군들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전선에서 당 정책 집행을 정확히 조직하고 있으며 당의 의도를 훌륭히 실현하고 있다.

이것은 당의 령도 하에 우리 인민이 달성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의 하나이며 오늘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의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혁명은 부단히 전진하며 생활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는 간부들의 역할을 더 한층 제고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부단히 심화 발전되고 있는 사회주의 건설 자체가 제기하는 필연적 요구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점점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함에 따라 당과 인민 앞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이의 실현을 위하여 비상히 높은 열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의 높은 창조적 적극성을 더 잘 조직 동원하며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리는 오직 간부들의 역할을 더 한층 높이는 데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간부들의 역할을 제고하는 문제는 사회주의 건설을 가일층 촉진함에 있어서 실로 관건적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현 시기 간부들의 역할을 제고함에 있어서 특히 그들의 혁명가적 기풍을 확립할 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국제 국내적으로 계급 투쟁이 치렬하게 전개되고 있는 환경에서 방대하고 어려운 과업들을 해결하는 긴장된 투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간부들이 혁명가적 기풍을 소유함이 없이는 당 정책 집행에서 혁명적 전개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군중에 대한 태도를 옳게 가질 수 없으며 자기의 실무 수준을 높이는 것도 잘 해결할 수 없다.

간부들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당과 대중의 요구가 비상히 높은 오늘 일'군들이 당 정책의 철저한 관철을 위하여, 당과 혁명에 더 큰 리익을 주기 위하여 부단히 생각하고 연구하지 않으며 일을 빈틈 없이 조직하자고 밤잠을 자지 않고 아득바득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임무를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다.

만약 일'군들이 이와 같은 혁명적 기풍을 견지하지 않을 때에는 일이 잘 안되거나 국가 재산이 랑비 되는 것을 보고도 아파하지 않으며 일을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시키는 일이나 하며 일을 찾아 하려고는 하지 않는 사무원적 근성, 자기 기관, 자기 부서의 사업만 알고 전반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않으며 사업에서 결함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거나 책임을 서로 전가하려는 본위주의적 태도, 인민들의 살림 살이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 등을 발로시킬 수 있다.

우리 일'군들이 혁명적 기풍을 소유할 데 대한 요구는 특히 경제 관리에서 새로운 지도 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됨에 따라 더욱 날카롭게 제기되고 있다.

대안의 사업 체계와 새 농업 지도 체계는 본질에 있어서 혁명적 사업 체계이다. 이 체계는 그 자체가 일'군들의 혁명적 사업 방법과 사업 작풍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새로운 사업 체계는 한 마디로 말해서 공산주의적 사업 체계입니다. 모든 일'군들이 공산주의적 사업 작풍과 사업 방법을 체득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사업 체계를 운영할 수 없으며 더욱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새로운 지도 체계의 요구에 상응하게 사업하며 이 체계의 우월성을 남김 없이 발휘시키기 위하여서는 모든 간부들이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부서 본위주의 등 일체 낡은 틀을 철저히 뿌리빼며 당 정책 관철을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까지 해결하며 대중의 앞장에 서서 이신 작칙하면서 그들의 자각적 열성을 최대한으로 발동시키는 혁명가적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오늘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계속 성과 있게 진척되고 생활이 날로 향상되고 있는 한편 우리 혁명은 계속 간고성과 장기성을 띠고 있는 조건에서 만일 간부들이 혁명가적 기풍을 견지하기 위하여 부단히 단련하지 않는다면 혁명적 지조를 끝까지 지켜 내지 못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계속 순조롭게 추진됨에 따라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보장된 조건에서 사업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는 아직 민족 해방 혁명을 완수하지 못 하였다.

우리 인민은 벌써 반세기 간에 걸쳐, 해방 후에만 하여도 근 20년에 걸쳐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전개하여 왔으나 앞으로도 계속 장기간에 걸쳐 허다한 난관을 극복하면서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다.

우리는 조국 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달성한 후에도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여야 하며 나아가서 전

세계에서 피압박 인민들이 해방될 때까지는 투쟁을 잠시도 멈출 수 없다.

이러한 형편에서 일'군들이 혁명가적 기풍을 확립하기 위하여 부단히 단련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생활 처지를 잊어버리게 되고 계급적 립장과 관점이 약화될 수 있으며 생활이 향상되고 혁명이 장기화됨에 따라 안일성과 권태증이 나올 수 있으며 낡은 사상 잔재들이 소생되고 조장될 수 있다.

우리는 부르죠아 사상 잔재의 반영인 사업에서의 무책임성, 사무원적 근성, 안일성과 권태증이 조금이라도 발현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전진 운동에 큰 저애를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며 그의 사소한 표현도 허용하지 않도록 혁명가적 기풍을 확립하기에 부단히 힘써야 할 것이다.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며 불요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악하게 투쟁하는 것, 이것은 철저한 로동 계급의 세계관,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공산주의 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혁명가적 기풍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기본 문제로 된다.

이러한 기질을 소유할 때에만 항상 군중 속에 들어 가 그들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모든 사업에서 자기가 앞장 서서 솔선 수범하며, 어떤 곤난 앞에서도 굴함이 없이 이를 극복 타개해 나가며, 언제나 자기 사업을 총화 비판하고 부단히 전진하는 혁명가적 기풍을 전면적으로 확립할 수 있다.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 이것은 혁명의 지휘 성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첫째 조건으로 되지만 이것만으로써는 자기의 혁명 임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없다. 혁명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자면 반드시 군중을 옳게 발동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들은 언제나 군중 속에 들어 가 현실을 세밀하게 연구하며 군중에게서 배우고 그들을 가르치며 군중을 당 정책 관철에 자각적으로 발동시킬 줄 아는 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풍을 소유함으로써만 현실적 조건들을 가장 정확히 타산할 수 있으며 계획도 실현성 있게 세울 수 있으며 예비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 책상에 앉아서는 군중의 요구를 모르고 그들의 힘도 알 수 없으며 사업에서 그것을 타산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군중 속에 들어 가고 군중에 의거하는 것은 혁명가적 기풍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또한 군중을 더 잘 발동하여 당 정책을 심도 있게 관철하자면 간부들이 군중의 앞장에 서서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간부들은 사업에서나, 학습에서나, 생활에서나를 막론하고 모든 면에서 이신 작칙하여야 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자식들이 모든 것을 부모들에게서 배우듯이 군중은 간부들의 모범에서 배우기 때문이다.

간부들이 앞장서고 이신 작칙하는 것은 항일 빨찌산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하나의 철칙으로 되여 있었다. 지휘관들은 진공할 때에는 대원들의 앞장에 서고 후퇴할 때에는 뒤에 섰으며 총도 대원들보다 더 잘 쏘고 학습에서도 모

범이 되였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혁명 선배들이 바로 그러했던 것처럼 로동에서나, 학습에서나, 절약을 위한 투쟁에서나 기술을 습득하는 데서나 반드시 대중의 선두에 서며 그들의 모범이 되여야 한다.

이것이 또한 혁명가적 기풍을 수립하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 정책을 관철하는 행정에서 여러 가지 곤난에 부닥치게 되는 것은 피치 못할 일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맨주먹으로 일어 서서 발톱까지 무장한 적들을 쳐부셔야 하며 원쑤들의 계속되는 반항을 물리치면서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여야 하며 물과 풀이 있는 곳이라면 어데서나 락원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러한 로동 계급의 위업이 어찌 아무런 곤난도 없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더우기 오늘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이렇다 할 밑천도 물려 받지 못하였으며 조국이 분렬된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남보다 빠른 속도로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더 많은 난관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난관은 지난날 항일 빨찌산들이 겪은 곤난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우리는 혁명 선배들이 중중첩첩의 적 포위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각가지 난관과 시련을 이겨 내고 계속 승리한 그 고귀한 혁명적 기풍을 본받아 어떤 곤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를 극복 타개해 나가야 한다. 만약에 일'군들이 곤난에 부닥쳤을 때 그 앞에서 굴복하고 물러 선다면 당 정책의 원만한 관철도 혁명의 승리도 기대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군들이 혁명가적 기풍을 갖추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상적으로 자기 사업을 총화하고 결함을 제때에 시정하며 부단히 전진할 줄 아는 것이다.

자기 사업을 검토하고 스스로가 결함을 찾아 내며 남의 비판을 진심으로 접수하고 대담하게 시정하는 것,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에게 고유한 품성이며 개체의 발전, 사업에서의 개진, 나아가서 전 사회의 발전을 빠르게 하는 위력한 추동력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우리 일'군들에게 매일, 매주, 매달 자기 사업을 총화하고 무엇을 하자고 계획하였는데 못한 것이 무엇이며 왜 못 하였는가, 무엇을 잘 못 하였는데 왜 잘못했는가… 이렇게 부단히 자신을 검토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일'군들은 자신을 더 잘 단련하고 수양할 수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모든 기풍을 소유하였을 때 그는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혁명가로 될 수 있다.

혁명가적 기풍은 혁명적 실천 행정에서 부단한 수양과 사상 투쟁을 통하여서만 소유할 수 있으며 견지할 수 있다. 이 세상에는 혁명가적 기풍을 타고 난 사람이란 없다. 누구를 막론하고 혁명적 단련과 수양을 강화한다면 그것을 가질 수 있으며 만약 자체의 단련과 수양을 게을리 한다면 가졌던 혁명가적 기풍도 잃어 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한 평생을 두고 단련하고 수양하여야 하며 원쑤들과의 투쟁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업에서 성과가 계속되는 순탄한 환경에서도

단련을 계속하여야 한다.

원쑤들이 직접 눈앞에 보이지 않는 평화적 건설의 시기, 더우기 생활이 날로 유족해지는 오늘의 환경에서 우리는 자신의 사상 단련에 더욱 힘써야 한다. 왜냐 하면 이러한 때에 우리가 혁명적 단련과 수양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부화와 안일에 물젖을 수 있으며 자기 일신의 안온한 생활만을 추구하는 소부르죠아적 사상 잔재가 머리를 추켜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단련하고 수양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체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확립하는 것이다.

혁명적 세계관의 확립은 혁명적 생활 기풍, 사업 기풍을 확립하는 전제로 된다. 오직 공산주의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될 때에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부르죠아 사상과 수정주의 요소를 제때에 식별하고 격파할 수 있으며 순경과 역경할 것 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능히 계급적 립장, 혁명의 리익을 고수하여 끝까지 싸울 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적 실천 과정에서 부단한 사상 투쟁과 학습을 통하여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확립하며 실무 수준을 계속 높여야 한다.

특히 오늘 우리 당은 간부들 속에서 학습 기풍을 더욱 강화하며 모두가 더 많이 배우기 위하여 정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당 정책을 더 잘 관철하기 위하여서도, 군중과의 사업을 더 잘 하기 위하여서도, 자기 사업을 더 잘 총화하고 계속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일’군들이 더 잘 학습하여 그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당 조직들은 일’군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도록 지도함으로써 그들이 자체의 사상 단련과 학습을 더 잘 하도록 부단히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군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자래우기 위하여 부단히 배려하는 동시에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결함이 나타날 때에는 어루만질 것이 아니라 제때에 엄격하게 비판하고 원칙적으로 교양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간부들에 대한 당과 인민의 기대는 비상히 크다.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의 생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우리 일’군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인민들의 생활이 크게 좌우된다.

간부들은 인민들 앞에서 지닌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그들의 살림살이를 더 잘, 더 알뜰하게 꾸려 주도록 언제나 세심한 배려를 돌려야 한다. 이것은 바로 일’군들이 혁명가적 기풍을 소유할 때에만 훌륭히 해결될 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우리의 전진 운동에서 간부들의 혁명적 기풍을 확립하는 문제가 가지는 의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자체의 혁명적 단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혁명가다운 기풍으로 튼튼히 무장될 때 그들이 맡은 초소마다에서는 거대한 전변이 일어 날 것이며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통일을 위한 위업 달성에서 더욱 위대한 승리가 달성될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와 일’군들의 실무 교양

양　형　섭

실무 교양 강화의 필요성

당이 제시한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10대 과업 중에서 일’군들의 학습 문제는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은 일’군들이 정치 학습, 기술 학습과 더불어 실무 학습을 잘 할 데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현 시기 사회주의 건설의 제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일’군들의 실무 수준 제고 문제는 긴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은 심화 발전되고 있으며 전면적 기술 혁명의 과업이 실현되고 있다.

우리의 일은 많아졌고 복잡해졌고 어려워졌다. 생산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확대됨에 따라 기업소의 규모와 경영 활동의 범위가 부단히 넓어지고 있으며 생산 공정과 생산적 련계가 더욱 다양하게 얽혀지고 있다.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과 문화 수준도 높아졌고 그들이 일하려는 열의도 계속 앙양되고 있다.

이 모든 사정은 우리 일’군들로 하여금 사업에 더욱 파고 들어 실무적인 문제 처리에서까지 조직 지도적 역할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매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짜고 들어 딱딱 맞물려 돌아 가게 하지 않으면 사업의 전반적 공정에 커다란 지장을 줄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높은 기술, 의식 수준에 맞게 사업을 조직해 주지 않으면 그들의 능력을 옳게 발양시킬 수 없다. 이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추진시킴에 있어서 긴요한 문제이다.

지난 기간 우리 일’군들이 우에서 내려 오는 계획이나 쪼개 주고 앉아서 통계나 받고 회의, 문서 놀음에나 매여 달려 쉽게 일하던 식으로는 오늘의 현실에 전혀 적응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생산에 대한 정확한 조직자, 집행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에게는 사회주의 건설의 당면한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당장 써 먹을 수 있는 실무적 능력을 더욱 높일 데 대한 문제가 날카롭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일’군들에게는 실무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의 간부 대렬에는 부단히 새로운 사람들이 보충되고 있는데 그들은 학교에서 실무적 문제들을 많이 배우지 못했고 사

업에서 경험이 없다나니 실무에 더욱 걸린다.

지난해 경제 과업 수행을 위한 투쟁 행정에서 나타난 일부 결함들을 분석해 본 바에 의하더라도 그것은 주로 일'군들의 실무적 능력 부족과 관련되여 있였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 기관들과 재직 간부 양성 기관들에서는 주로 맑스-레닌주의 원리를 가르치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 그러다나니 우리의 수 많은 일'군들이 고등 교육을 받았으나 사업에 능숙하지 못 하다. 일'군들이 원리는 알고 있는데 당장 필요한 실무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에서 걸리고 있다.

그러므로 당은 최근 시기 일'군들이 실무 수준을 높일 것을 중요한 혁명 과업의 하나로 제기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지난 2월 26일 중앙 당 학교를 현지 지도하는 과정에서도 교수 교양 사업에서 일반적 원리에만 치우치는 경향을 지적하고 우리 당의 투쟁 경험에 기초하여 당장 써 먹을 수 있는 지식을 더 많이 줄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우리 일'군들은 우리 당의 력사적 투쟁 경험으로 무장하여야 하며 자기의 전문 분야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 규범과 지식, 기술을 알아야 하며 해당 분야에 맞는 관리 운영 방법, 사업 방법들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은 재직 간부 양성 체계들에서 교수 교양 사업을 실천 사업과 밀접히 결합하는 방향에서 개편할 것을 제기하고 있으며 교수 내용에서도 맑스-레닌주의 원리와 더불어 실무적 문제들을 옳게 결합시켜 줄 데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당과 현실의 요구에 적응하게 우리 일'군들의 실무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그리고 전 당이 이 사업에 관심을 높이고 투쟁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 교양의 중심 내용

실무 수준 제고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되여야 할 것은 우선 우리 당의 투쟁 경험이다. 일'군들을 우리 당의 투쟁 경험으로 무장시킴으로써만 모든 사업에서 능수가 되게 할 수 있다.

우리 당은 비록 력사는 짧으나 그 로정은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으로 충만되여 있다.

우리 당은 15 여 성상을 간악한 일제와 싸운 항일 빨찌산들을 핵심으로 하여 창건되였으며, 그의 창건 첫날부터 또한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의 어려운 과업들을 수행하였고, 국제 반동의 괴수 미제 침략자들과 영웅적 투쟁을 진행하였으며 전후 간고한 시련 속에서 사회주의적 개조,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하여 왔다. 당 내에서는 조선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 력사적 화근으로 되여 오던 종파와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그를 종국적으로 극복하였다.

우리 당은 자기의 풍부하고 창조적인 투쟁 경험으로써 맑스-레닌주의 보물고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우리 혁명이 나아갈 명확한 방도를 찾아 내였다.

일'군들이 우리 당의 이 경험을 습득하기만 한다면 사업에서 어떠한 어렵고 복잡한 실무적 문제들에 부닥쳐도 걸릴 것이 없다.

대안 전기 공장 당 위원회의 사업 경험만 가져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산 기업소 당 단체들의 사업을 훌륭히 개선해 나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숙천의 사업 경험을 가지면 농촌 문제 지도에서 걸릴 것이 없으며 안주 탄광의 경험을 가지면 채굴 부문의 사업을 풀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일'군들이 바로 자체의 경험을 잘 배울 줄 모르고 있다. 지식이라면 그저 맑스-레닌주의 원리를 알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투쟁 행정에서 축적된 산 경험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방도와 해답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 사회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업을 능숙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우리 당의 투쟁 경험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것—이것이 바로 일'군들의 실무 수준 제고에서 첫째 가는 요구이다.

다음으로 실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은 매개 일'군들이 해당 부문의 구체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는 것이다.

일'군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매개 분야에서 우선 자기 부문의 모든 경제, 기술, 실무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 혁명은 전면적 기술 혁명의 단계에 처하여 있다. 어디에서나 마주치는 것은 기술 문제이며 경제적 문제들이다. 농촌에 배치되면 농업 기술과 농업 경제를 알아야 하며 건설장에 배치되면 건설 재료와 설계, 시공 문제들을 알아야 하며 기계 공장에 배치되면 기계 기술과 공업 경제적 문제들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도할 수 없으며 거기에서 걸린 문제들을 풀어 줄 수 없다. 이와 같이 기술과 경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일'군들의 사업에서 실무적으로 부닥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실무 수준을 높이는 사업은 반드시 해당 부문의 당 정책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사업과 결합되여야 한다.

실무 사업이란 바로 그 단위에 대한 당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 행정 사업이다. 그러므로 당의 정책적 요구를 모르고서는 실무 사업이란 자체의 의의를 잃어 버린다. 해당 부문의 당 정책을 잘 앎으로써만 배우고 있는 실무 문제들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 그래야 결국 실무 교양도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당의 정책 교양도 그의 실현 방도의 연구와 결부하여 잘 진행될 수 있다.

실무 수준을 높이는 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도덕 교양, 문화 예술 교양을 잘 하는 문제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사람과의 사업을 떠난 실무 사업이란 있을 수 없다. 매 실무 사업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사람과의 사업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사업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행동 준칙인 도덕적 원칙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따라서 일'군들은 실무 수준 제고와 함께 도덕적 수양을 강화해야 하며 사업 작풍을 개선하는 문제에 큰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회상기 학습도 많이 하고 문학 예술 작품도 많이 감상하여 사람들의 심리 세계를 보다 폭 넓게 료해하며, 매 사업 행정에서 군중에게 긍정적이며 당적인 영향을 옳게 주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실무 사업이 실지 대중을 교양하고 발동시키는 사업과 결부되여 보다 큰 생활력을 나타낼 수 있다.

실무 교양의 중요 방도

실무 교양을 잘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매개 기관, 기업소 당 위원회들에서 이 사업을 틀어 쥐고 옳게 추진시켜 나가는 것이며 동시에 매개 일'군들이 자체 학습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당 위원회들에서는 우선 상학조를 잘 운영해 나가야 한다.

상학조 운영에서는 특히 해당 단위의 일'군들에게 가장 부족되는 실무적 측면들을 놓고 집중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체적으로 모여 앉아 강사의 지도 밑에 경제 문제, 기술 문제들을 기초적 원리로부터 배워 가면서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당 위원회들에서는 또한 책임 일'군들이 아래 일'군들을 사업에 함께 인입시켜 가지고 가르쳐 주는 문제에 중요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례컨대 군 당이나 군 인민 위원회의 부장들이 지도원들을 혼자 아래에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데리고 가서 함께 사업하면서 실무적 문제들을 한 가지씩 가르쳐 주는 것이 좋다. 특히 새로 배치된 일'군들의 경우에 이러한 방법은 절실한 요구로 된다.

책임 일'군들은 동시에 어느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향에서 아래 일'군들을 교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단위라도 전형적인 사업 규범의 요구대로 잘 움직일 수 있게 꾸려 놓고 다른 모든 단위의 일'군들을 거기에 데려다가 구체적으로 배워 주는 것이 효과적인 교양 방도이다. 실무란 원래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저 사무실에 앉아서 사업 규범이나 배워 주는 것으로써는 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일하는 데 가서 실제적인 사업 진행 공정들을 하나하나 보여 주면서 가르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당 위원회들에서는 매개 일'군들이 사업 총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배우게 하는 데 관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매개 일'군들, 매 사업 단위들에서 사업 총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여야 한다. 사업 총화에서 일'군들의 실무 수준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측면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매개 일'군들이 지난 사업의 구체적 공정들을 따져 가면서 어떤 일은 어째서 잘 되였고 어떤 일은 왜 안 되였는가를 구명해 가느라면 앞으로의 사업에서 구현해야 할 새로운 실무적 대책들을 효과적으로 찾아 낼 수 있다. 이것은 곧 실무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된다.

동시에 매개 당 위원회들에서는 일'군들을 교대교대로 학교에 보내여 재교육시키기 위한 사업을 옳게 조직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당면한 사업이 바쁘다고 해서 일'군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결국 그들의 수준을 잘 높일 수 없고 사업은 오히려 더 바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특히 책임 일'군들이 아래 일'군들의 재교육 사업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

실무 수준 제고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매개 일'군들의 자체 학습이다.

일정한 리론적 기초가 있고 능력도 있는 일'군들에게 있어서는 외부적 주입 방법이 결코 우위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일'군들은 재직 간부 양성 체계나 혹은 강습회에 망라된다 하더라도 역시 자체의 노력이 결정적 역할을 논다. 물론 가르치는 교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아 무는 사람들의 주체적 노력이 없다면 교원들의 훌륭한 강의도 생활력을 잘 나타낼 수 없다.

우선 매개 일'군들이 우리 혁명의 현 단계의 긴절한 요구를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배우려는 각오를 굳건히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일정한 시기에 수준이 높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결코 자만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부단히 전진하고 있으며 혁명은 부단히 새로운 과업, 더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지식의 풍부성은 언제나 상대적 의의밖에 가질 수 없다. 우리 일'군들은 얼마 간이라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곧 현실의 요구에 뒤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과 생활 계획을 정확히 짜고 거기에 학습 시간을 정상적으로 배정하고 그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학습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지만 배우려는 각오와 노력이 항상 머리와 몸에서 떠나지 않는 일'군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도들을 실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우선 조금이라도 더 아는 모든 일'군들이 모르는 일'군들을 가르쳐 주기에 노력하며 또 모르는 일'군들은 조금이라도 허심하게 배우기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배우고 배워 주는 데는 체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서로 배우고 배워 주는 기풍을 전 당적으로 세우고 생활화함으로써만 일'군들의 능력을 급속히 높일 수 있다.

교양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원칙은 리론과 실천을 옳게 결합하는 것이다.

실무적 리론들은 반드시 실천적 사업과 결합됨으로써만 일'군들의 산 능력으로 될 수 있다.

물론 실무 교양은 주로 실천 행정에서 진행되니만큼 지식을 주겠지만 동시에 거기에 리론이 안받침됨으로써만 그것이 보다 공고한 실무적 지식으로 될 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실무 수준 제고의 필요성, 실무 수준 제고의 중심 내용과 방도를 옳게 파악함으로써만 이 사업을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성과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수 있다.

당 사업 지도에서 모범 창조가 가지는 의의

강 정 중

당 사업 지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것은 우리 당 령도 방법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항상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전형적인 한 단위를 지도하고 모범을 창조하며 그에서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전반적 단위를 지도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의 청산리에 대한 지도, 대안 전기 공장과 숙천군에 대한 지도, 창성군에 대한 지도 등은 그의 전형적인 실례로 된다.

특히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에 의하여 창조된 청산리와 대안 전기 공장의 모범은 당 사업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인 수행에서 얼마나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는가.

우리 당은 바로 김 일성 동지의 령도에서 중요 특징으로 되고 있는 이 령도 방법을 전 당적인 사업 기풍으로 확립함으로써 당 사업과 행정 경제 사업에서 거대한 전변을 일으키게 하였다.

그러므로 오늘 각급 당 위원회들과 지도 일'군들이 당 사업 지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일반화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는 것은 당 사업 발전과 혁명 과업의 성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의 결합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 방법이다.

우리 당은 당 사업과 행정 경제 사업 지도의 모든 분야에서 항상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옳게 결합함으로써 인민 대중을 당 정책 관철에로 성과 있게 조직 동원하여 왔다.

모범을 창조하는 사업은 바로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의 결합을 성과 있게 보장하는 중요한 고리이다.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의 결합은 모범을 창조하고 그를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며 구체화된다.

모범을 창조하는 사업은 일반적 포치가 있은 다음 전반적 단위에 대한 지도에 앞서 개별적인 한 단위를 지도하는 과정이다. 즉 당 정책을 전반적 단위에서 포치하며 집행하기 전에 력량을 집중하여 전형적인 한 단위를 지도함으로써 실천을 통하여 당 정책의 정당성을 검증하며 그의 성과적인 관철을 위한 우수한 경험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범을 창조하는 사업은 당의 일반적 사업 포치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그 내용을 보충함으로써 일'군들의 지도 수준을 높이며 나아가서 전반

적 단위에서의 당 정책의 성과적인 관철을 보장한다.

모범 창조를 위한 사업은 우선 일'군들의 지도에서 있을 수 있는 주관주의,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그들의 지도 수준을 높인다.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관주의, 형식주의는 당 정책을 깊이 인식하지 못 하며 현실을 구체적으로 조사 장악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주관주의, 형식주의를 극복하려면 일'군들이 항상 당 정책의 본질과 그의 내용, 구체적인 수행 방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현실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당 정책에 대한, 현실에 대한 파악이 깊으면 깊을수록 지도에서 주관주의, 형식주의는 더 철저히 극복될 것이며 지도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당 정책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실천 행정에서 그를 체득하는 것이다.

실천은 인식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은 지식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 역할을 논다.

우리가 만약 당 정책을 인식함에 있어서 리론적으로 파악하는 데 만족하고 실천을 통하여 그의 본질을 철저히 파악하지 않거나 집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문제를 알지 못 한다면 당 정책을 정확히 관철할 수 없다.

강의 받을 때는 태산도 허물 것 같은데 실지 사업에 착수하면 모를 것이 많고 걸리는 것이 많다는 말은 일'군들이 실천 활동을 통하여 이미 리론적으로 체득한 지식을 공고히 하지 못한 데 있다.

모범 창조를 위한 사업은 바로 당 정책의 정당성을 군중들과 함께 실천을 통하여 검증하는 행정인 것 만큼 여기에서는 당 정책의 본질이 명확히 밝혀지고 그의 요구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범을 창조하는 행정에서 일'군들은 강의나 문건을 통하여 리론 상으로 파악하였던 당 정책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고하게 하며 주관주의적 견해를 시정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모범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일'군들은 군중들의 각오 정도와 사업 형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현실을 파악하는 목적은 군중들의 준비 정도와 요구, 특성에 맞게 당 정책 집행을 조직하며 그를 관철하자는 데 있다.

때문에 현실을 조사 장악함에 있어서 해당 당 정책에 대한 군중들의 태도, 요구를 정확히 알아 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모범을 창조하는 과정은 당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인 만큼 일'군들은 이 행정에서 현실을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당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료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군중들의 준비 정도, 그들의 희망과 요구, 사업 형편들을 가장 정확히,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실에 대한 이와 같은 파악이 있음으로써만 일'군들은 지도에서 주관주의

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당 정책은 실천에 옮겨지고 생활에 구현됨으로써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 정책을 정확히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의 집행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도를 찾아 내는 것이다.

모범 창조를 위한 사업에는 준비된 여러 사람들의 지혜가 집중됨으로써 여기에서는 당 정책 집행을 위한 가장 우수한 경험들이 창조된다. 즉 당 정책을 침투하는 방법으로부터 력량을 포치하고 군중을 동원하며 사업을 총화하는 등에 이르는 모든 사업 방법들과 집행 방도들이 강구되는 것이다.

일'군들은 창조된 이러한 경험에 기초함으로써 당 정책 집행에서 선후차와 중심 고리를 정확히 가려 내고 군중을 옳게 조직 동원할 수 있으며 당 정책을 제때에 성과적으로 관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범 창조를 통하여 일'군들이 당 정책에 대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더 깊이 하며 당 정책을 군중 속에 조직 집행하는 방법을 체득하는 것은 그들의 지도에서 주관주의,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며 자기 사업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확고한 신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동시에 일'군들의 지도 수준을 높이는 행정이며 그의 결정적인 방법으로 된다.

창조된 모범으로 일'군들을 교양하는 것은 실물 교양의 중요한 형식이다.

실물 교양은 군중 교양의 중요한 방도로 될 뿐만 아니라 지도 일'군들을 교양하는 데 있어서도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그것은 지도 일'군들이 창조된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사업에서 부족점을 보다 명확히 찾아 내며 지식을 보충하고 사업 방법과 작풍에서의 결함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달성된 성과를 가지고 일'군들을 교양하는 것은 지도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들의 열성을 더욱 자극하며 사업에서 확고한 전망과 신심을 가지게 한다.

오늘 우리 당은 일'군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배워 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당의 이러한 방침을 관철함에 있어서 모범 창조를 통하여 일'군들을 교양하는 것은 각별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모범 창조가 가지는 의의는 대중 자신이 실천한 경험으로 군중을 교양하게 됨으로써 군중들이 당 정책을 보다 빨리 접수하고 그의 정당성을 깊이 확신하게 하며 그리하여 당 정책 관철에로 그들을 더욱 자각적으로 동원하게 한다는 데 있다.

창조된 경험으로 대중들을 교양하는 것은 바로 대중들이 실천한 경험으로, 실물로 교양하는 것이다.

실물을 통한 교양, 이것은 가장 효과가 있고 가장 설복력 있는 선전이며 군중을 인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대중은 일반적, 선전적 구호에 의하여 문제를 리해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절실한 경험을 통하여 그것을 리해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대중들은 리론도 물론 중요시하지만 그래도 행동을, 실천적 경험을 더 중요시 한다.

오늘 우리 당이 실물을 통한 교양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 협동화 운동의 력사적 경험은 대중 교양에서 실물 교양의 우월성을 보여 주는 전형적인 례로 될 수 있다.

농업 협동화 운동의 초기에 시범적으로 조직된 협동 조합을 통하여 광범한 농민들이 교양되였으며 특히 다수의 중농들은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교양되고 협동 조합에 참가하였다.

이와 같이 실물 교양은 대중 교양에서 가장 우월한 방법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모범으로 대중을 교양하는 것은 그들이 당 정책을 빨리 접수하고 그의 수행 방도를 제때에 찾아 내게 하며 그들을 당 정책 관철에로 성과 있게 조직 동원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된다.

특히 창조된 모범에 의한 교양은 당 정책 집행에서의 가장 우수한 경험으로, 긍정적 모범으로 교양하는 것이다.

모범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발휘한 대중들의 훌륭한 사상, 높은 책임성과 적극성은 당 정책 집행에 나선 광범한 군중들을 적극 교양하며 특히 뒤떨어진 사람들을 강력히 자극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결함과 부족점을 제때에 시정할 수 있게 한다.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쁘다고 몰아치고 욕하는 것보다 긍정을 가지고 감화하는 것이 몇 배의 더 좋은 효과를 낳는 것이다.

또한 창조된 모범을 통하여 대중은 당 정책 집행에서의 확고한 전망과 신심을 가지게 되며 투쟁에서의 명백한 목표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대중들로 하여금 창조된 모범의 수준을 릉가하며 더 훌륭한 성과를 달성하려는 적극성과 열성을 불러 일으키며 당 정책의 성과적인 관철을 보장하게 한다.

바로 이와 같이 모범 창조는 당 사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 *

모범 창조가 가지는 의의가 아무러 크다 할지라도 이 사업에서 우수한 경험이 창조되지 못 하거나 또한 창조된 모범이 전반적 단위에 일반화될 수 있는 전형적인 것으로 되지 못 할 때에는 그것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 한다.

그러므로 각급 당 위원회들은 모범 창조를 위한 사업에 각별한 의의를 부여하고 이 사업을 목적 의식적으로 조직 지도하도록 할 것이다.

모범 창조를 위한 사업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지도 대상을 옳게 설정하는 문제이다.

각 지방의 사업 형편, 특성, 군중들의 준비 정도는 각이하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대상을 고려하

지 않고 선정한다면 설사 지도한 단위에서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에서 얻은 경험들은 전반적 단위에 일반화할 수 있는 산 것으로 되지 못 한다.

우리는 창조된 경험을 일반화할 대상들의 사업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며 군중들의 각성 정도를 참작하여 모범을 창조할 대상을 선정하고 지도함으로써 타에 일반화할 수 있는 전형적인 우수한 경험을 창조하도록 할 것이다.

지도 대상이 선정된 다음에는 준비된 우수한 력량을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목적 의식적으로 경험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임 간부들의 지도 하에 해당 부문 전문 일'군들을 망라하는 지도 그루빠를 조직함으로써 혁명 과업 수행에서 제기되는 전반적 문제를 틀어 쥐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경험의 창조는 무계획적으로가 아니라 일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사업이 그러한 바와 같이 경험을 창조하는 사업도 목적과 의도가 명백하지 않고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당 정책의 성과적 관철을 위하여 어떠한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얻어 낼 것인가, 대중 지도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등의 목표가 지도에 앞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여야 한다.

이래야만 지도 력량을 분산시킴이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으며 모든 사업을 이 문제 해결에 복종시킬 수 있다.

창조할 경험의 옳은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도에 동원되는 일'군들이 당 정책의 본질, 당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충분한 론쟁과 토의를 선행시켜야 한다. 동시에 광범한 군중들의 지혜와 창발성을 이 사업에 인입하는 것은 정확한 목표를 수립하는 결정적 조건으로 된다.

지금 각급 당 위원회들은 대안 전기 공장과 숙천군에 대한 현지 지도 경험에 기초하여 산하 군, 리 혹은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들을 한 단위씩 지도하고 모범을 창조하는 사업을 광범히 진행하고 있다.

각급 당 조직들과 지도 일'군들은 모범을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전반적 단위에서 당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며 금년도 당 조직들 앞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빛나게 수행할 것이다.

당 정책 관철의 첫 공정은 인식 단계이다

리 승 록

당은 그의 정책 관철에서 인식 단계 즉 당 정책을 연구 파악하는 단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와 관련되며 특수적으로는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 심화되고 있는 사회주의 건설의 요구와 관련된다.

당 정책은 바로 우리 사회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반영하며 그에 적응한 활동 방침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당 정책에 의거하며, 그를 파악함으로써만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게 활동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 이 요구는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더 강화된다.

* *

사회주의 사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대한 발전 법칙의 인식을 요구하며 그에 기초한 의식적인 활동을 요구한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통일적으로 조직화된 사회라는 것과 관련된다.

사회주의 사회는 생산 수단이 사회화되여 있고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조직되여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는 오직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만 운영해 나갈 수 있다. 맹목적이며 자의적인 활동은 우리 사회의 요구에 적응할 수 없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는 수백만 대중의 의식적이며 자각적인 창조물이다.

여기에 사회주의 사회 발전의 중요한 특성이 있다.

생산 수단이 사'적 소유로 되여 있는 사회 제도 하에서는 사회의 의식적인 건설이란 있을 수 없다. 거기서는 매 사람들의 주관적인 의식성, 매 생산 단위에서의 주관적인 계획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회적인 통일적 의지의 지도와 통제를 받을 수 없음으로 하여 총체적으로는 무정부적 활동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의식성, 계획성이란 그것이 강화되면 될수록 사회적인 혼란과 무정부성을 더욱더 심각화시킬 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자유 경쟁과 그의 필연적 결과로 되는 경제 공황은 이를 잘 말하여 주고 있다.

반면에 사회주의 사회는 조직화된 사회이므로 문'자 그대로 인민 대중의 의식적인 건설이 요구되며 그것은 전 사회적인 통일적 의지 즉 당에 의하여 향도되며 지도된다.

《당은 사회의 발전 법칙에 기초하여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당원들에게 구체적인 투쟁 과업을 준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514 페지)

당이 준 이 투쟁 과업을 파악하면 곧 우리 사회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인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 사회 발전의 요구에 적응하게 의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사회주의를 계획적으로 건설해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군들은 당의 정책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그를 철저하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무조건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 정책에 대하여 결써 대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당 정책을 철저히 연구하고 무조건 집행하는 여기에 바로 우리 사회, 우리 혁명의 발전, 사회주의 건설의 촉진을 위해 투쟁하는 진정한 담보가 있는 것이다.

당 정책을 잘 인식하는 문제는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더 날카로운 문제로 제기된다.

사회주의 건설의 심화는 모든 부문에서 사업 상 련계를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들며 일'거리를 더 많고 힘들게 만든다.

세간살이가 적고 단조롭던 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아는 것으로써도 일을 해 나갈 수 있었고 좀 몰라도 사업에서 그리 큰 후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전후 사회주의 건설의 기초 축성 시기에 있어서는 군중에 대한 선동만으로써도 우리 사회를 전진시킬 수 있는 수다한 예비와 가능성들이 있었다. 물론 당시에 있어서도 당의 정책을 보다 리론적으로 파악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 법칙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이 중요하였으며 그것은 사업에서의 성과를 더욱 추동하는 힘으로 되였다.

특히 오늘에 있어서는 당 정책을 보다 심도 있게 알지 못하고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오늘 우리 혁명은 전면적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의 단계에 처하여 있다.

도처에서 보다 복잡하고 정밀한 기술 문제, 과학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문화 예술의 발전 문제, 인간의 전면적 개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당의 정책은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오늘 우리 일'군들은 당의 정책을 모르고서는 현 시기 우리 혁명의 요구를 리해할 수 없으며 동시에 기술과 경제를 모르고 문화를 모르고는 당의 정책을 리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일'군들의 노력은 우선 당 정책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한 투쟁으로 되여야 하며 기술, 경제, 문화, 예술을 소유하기 위한 투쟁으로 되여야 한다.

례컨대 현 시기 대안 체계의 본질을 옳게 파악하며 그것을 성과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우리 인민 경제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실현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공장 관리 체계로서의 대안 체계의 본질은 생산자 대중을 기업 관리에 가장 광범하게 참가시키는 데 있는바 이는 원래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심화와 더불어 필수적 요구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 요구는 아무 때나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안 체계의 확립은 바로 현 시기 우리 공업의 높은 발전 수준, 복잡하고 현대적인 기술적 장비의 강화와 우리 근로자들의 높은 기술 기능 수준, 의식 수준의 제고에 의하여 조건 지어졌다. 그리고 이런 조건 하에 있어서는 바로 전체 생산자 대중을 기업 관리에 실제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만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합법칙적 요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한 당의 현명한 방침을 리론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문제는 일'군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요구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현대적 사회주의 공업의 운영에 있어서 대안 체계를 도입함이 없이는 계획 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기술 준비, 자재 보장, 로동 행정, 계산 통제 등 기업 관리의 전체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 나갈 수 없으며, 생산자 대중의 높은 기술 수준과 혁명적 의식을 사회주의 건설에 성과적으로 동원할 수 없다. 이것은 사회주의 건설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생산 지표가 떨어지는 결과까지도 가져 올 수 있다.

대안 체계의 파악과 도입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당의 모든 정책적 문제들에 있어서도 사정은 동일하다.

더우기나 오늘 우리 혁명의 주객관적 정세가 사회주의 건설의 계속 빠른 속도를 요구하고 있는 조건에서 당 정책의 파악은 보다 긴요한 것으로 된다.

보통의 속도는 우리의 정세와 량립할 수 없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을 부단히 촉진함으로써 북반부에서의 혁명 발전의 요구를 실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혁명적 민주 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조국 통일의 물질적 국면을 보다 준비 있게 꾸려야 한다.

부단한 전진과 천리마적 속도는 바로 우리 사회 발전의 법칙이다. 《공부를 안 하고는 경제를 운영할 수 없고 사회 발전을 촉진시킬 수 없다.

우리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발전의 법칙에 따라서 계속 전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알아야 한다.》라고 김 일성 동지는 교시하였다. (선집 제 6 권, 349~350 폐지)

당은 혁명 정세에 대처하여 부단히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의 실현 방도들을 명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일'군들은 당의 정책을 제때에 파악하고 그를 구현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그래야 당과 혁명의 긴절한 요구에 맞게 사업할 수 있다.

또 일'군들이란 자기 혼자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것을 대중에게 알려 주고 그의 실천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당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대중이다. 따라서 당의 의도와 요구, 그의 실현 대책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알려 주며 그리하여 대중이 얼마나 자각적으로, 창발적으로 그 혁명 과업 수행에 동원되는가에 의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는 결정된다.

이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일'군들이 당 정책에 대한 인식, 리론적 파악이 성과적으로 되면 될수록 그 만큼 당 정책 관철의 전반적 공정이 성과적으로 풀려 나가게 되며 대중을 성과적으로 발동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반면에 당 정책에 대한 일'군들의 인식이 굼뜨면 굼뜬 그 만큼 당 정책 관철의 다음 공정들이 지체되게 된다.

당 정책을 모르는 채 일을 하려고 하면 주관적으로는 아무리 당에 충실하려고 해도 실천적으로는 걸리게 된다.

당 정책을 모르면 혁명 과업 수행의 방도를 잘 알 수 없고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옳게 세울 수 없다. 따라서 일에 대한 창발성과 능동성도 나올 수 없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해 놓은 일에 대한 정당성 여부도 알 수 없다. 또 모르면 대중을 설복 발동할 수도 없고 관료주의적으로 내려 먹일 수 밖에 없다.

결국 일은 걸리며 성과는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정책이 제기될 때마다 그것의 실천을 서둘기 전에 우선 그의 사상과 의도를 끝까지 연구 파악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일'군들 앞에 첫째 가는 요구로 된다.

바로 여기에 최근 시기 당이 계속 당 정책 관철에서의 첫 공정으로 되는 그의 인식 단계를 강조하고 있는 근거가 있다.

당은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인 실현을 위한 10 대 과업 중의 기본 과업의 하나로서도 학습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금년도를 일'군들에게 있어서 배우는 해로 되게 하라고 교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부 일'군들 속에서는 아직도 당 정책에 대한 연구 파악이 이렇게 심각하게 제기된다는 관점에 서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당 정책에 대한 인식 단계가 그의 관철의 확고한 하나의 공정으로, 그것도 보통의

공정이 아니라 바로 다른 모든 공정에 선행해야 하는 첫 공정으로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그들은 당이, 학습은 곧 당 사업이며 혁명 사업이라고 하는 진의도를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일'군들 속에서는 학습은 혁명 과업을 다 수행한 뒤에 여가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마는 식으로 간주하고 있다.

《시간이 있어야 학습을 하지요?》 하고 그들은 말한다.

원래 학습에 대하여 시간을 운운하는 사람은 자기 태공을 정당화하려는 사람 외에 다른 아무도 아니다. 사업이 바쁜 점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 나라에서는 한가한 사람을 따로 찾을 수 없다.

물론 일'군들은 사업 범위가 넓고 책임이 큰 것 만큼 더 바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많은 일'군들은 아주 훌륭하게 당 정책을 학습하고 있으며 따라서 혁명 과업 수행에서도 더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실상 경험은 바쁠수록 학습을 더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바쁘다고 학습을 다 걷어 치우고 일에만 달라 붙으면 일은 점점 더 풀려 나가지 않는다. 모르고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성과가 적다나니 오히려 일은 더 바빠진다. 학습을 안 하면 더욱 바빠지며 끝내는 오유를 범할 수 있다.

출로는 오직 사업의 방도가 명확히 밝혀져 있는 당의 정책으로 무장하는 데 있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학습 시간을 쟁취하며 사업과 학습을 성과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한 대책을 찾아 내는 데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일'군들 속에서의 학습의 의무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혁명 사업이란 곧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는가? 사회를 개조하고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자면 우선 간부들 자신부터 자기의 사상을 개조하여야 하며 사회의 발전 법칙에 관한 지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우리가 학습하지 않고서는, 즉 지식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선집 제 6 권, 298 페지)

문제는 일'군들이 학습을 더 잘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데 있다.

일'군들이 모두가 당 정책을 놓고 광범한 토론을 진행하고 론쟁을 진행함으로써만 그의 본질을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다. 동시에 군중 속에 들어가서 당 정책을 같이 의논하고 그의 실현 대책을 토의해야 당의 의도를 보다 명백히 파악할 수 있으며 그것을 대중의 의사와 결부하여 옳게 리해할 수 있다.

당 정책에 대한 일정한 지식이 주어진 다음에는 그것을 한 단위에서 우선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시범을 거치면 얻은 지식이 더 공고화되며 그의 실현에 대한 자신심이 생기고 대책도 보다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일'군들은 자기 사업을 부단히 총화하면서 우결함들을 찾아 내고 당의 정책적 요구와 결부하여 그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명확한 결론을 얻고 자기의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이리하여 모든 일'군들이 당의 정책을 더 잘 파악함으로써 그를 보다 성과적으로 관철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을 촉진시켜 나갈 수 있다.

사회주의 분배 원칙과 《작업반 점수제》

김 성 태

대안 전기 공장에서는 새로운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분배 법칙을 가장 정확히 관철하고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을 고도로 강화하는 새로운 분배 방식, 작업반 점수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였다.

대안의 사업 체계가 심화 발전하는 행정에서 산생된 작업반 점수제는 급속히 전국에 일반화되고 있으며 생산력 발전을 위한 커다란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

오늘 공업 부문에서 작업반 점수제를 정확히 실시하는 것은 금년도 10 대 과업의 하나인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 강화하며 높은 로동 생산 능률을 창조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대안 체계와 《작업반 점수제》

작업반 점수제는 대안의 사업 체계가 확립되고 생산자들 간의 호상 협조의 관계가 강화된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게 분배 관계를 개선 발전시키는 중요한 공간이다.

그것은 새 체계 하에서 앙양된 근로자들의 생산적 열의를 공고 발전시키며 생산력 발전의 요구를 성과 있게 실현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제기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분배 관계는 생산 관계의 한 중요 측면이다.

그것은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 관계의 다른 측면들에 의하여 규정되며 또한 그에 적극적으로 반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된 구체적 조건에 적응하게 분배 관계를 더욱 완성하는 것은 생산력 발전에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공업 분야에서 생산력이 발전하고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공고화됨에 따라 정액 및 도급 임금 형태를 부단히 발전시키는 한편 생산자들의 생산 의욕을 더욱 자극하기 위한 보충적 대책들, 각종 상금제 등을 이와 결합시켜 실시하여 왔다.

우리 당이 실시한 이러한 분배 형태들은 생산에서 일'군들의 큰 물질적 관심을 조성하였으며 생산 발전을 촉진하였다.

그런데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급속한 변화 발전은 경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또한 일'군들의 물질적 관심을 일층 제고할 수 있는 분배 방식의 확립을 요구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대안 체계의 확립—이것은 생산에서 일'군들 간에 맺어지는 호상 관계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대안 체계의 확립은 생산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 주며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주며 모든 사람들이 동지적으로 협조하는 기풍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였다.

근로자들의 동지적 협조와 공동 투쟁을 표현하는 사회주의 경쟁이 더욱더 강력히 전개되게 되고 새로운 로력 기준량 창조 운동, 집단적 기술 혁신 운동이 가일층 앙양되였다.

생산자들의 자각성과 열성이 제고된 결과에 로동에 대한 자체 정량, 자체 검사 사업이 일층 강화되고 로동의 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사업이 진행되게

되였다.

대안 체계의 확립은 또한 계획화 사업을 생산자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켰으며 대중의 높은 열성과 긴밀한 호상 협조에 의하여 그것을 집행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계획화 사업에서 생산 지령서 체계의 도입은 모든 생산자들이 호상 돕고 호상 이끌며 온갖 힘을 다하여 국가의 법인 계획을 수행하는 집단주의적 생활 기풍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오늘에 있어서의 생산 활동은 더욱더 집체적인 협력 하에서만 진행되게 되였으며 기술 혁신이 더욱더 급속히 촉진되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종래의 분배 형태들은 사회주의 분배 법칙의 요구를 관철함에 있어서 일정한 부족점을 낳게 되였다.

공장, 기업소들의 개인 도급 부문에서 도급 단가에 의하여 로임을 분배하는 것은 급속한 기술 혁신의 추진과 작업 방법의 개선에 따라 로동 기준량이 제때에 갱신되지 못하는 조건에서 더욱더 동일 로동에 대한 동일 보수 원칙을 정확히 관철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였다.

또한 반도급 및 조도급을 실시하는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능 급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하여 로임을 분배하는 것은 로동에 따르는 분배 법칙의 요구를 더욱더 정확히 실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였다.

그것은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이 비상히 높아지고 있는 조건에서 기능 급수에 의하여 표현되는 로동의 질과 로동자들이 실지 생산에 투하한 로동의 질과의 일치가 더욱더 어렵게 되였기 때문이다.

대안 전기 공장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였으며 지금 전국에 급속히 일반화되고 있는 작업반 점수제는 우리 나라 공업 생산 분야에서 일어 난 바로 이와 같은 변화들의 요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작업반 점수제》의 본질

작업반 점수제의 도입은 현 시기 공업 분야에 조성된 구체적 조건에 적응하게 분배 관계를 더욱 완성시킴으로써 생산 관계를 강화하고 생산력 발전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대책이다.

작업반 점수제를 실시한 후 극히 짧은 기간의 경험은 그것이 로동자들의 생산 의욕을 제고하며 공업 생산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조치이라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러면 작업반 점수제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의의와 우월성은 어데 있는가.

작업반 점수제의 본질은 로임 조직과 분배에 광범한 생산자 대중을 인입함으로써 공업 부문에서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 법칙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실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작업반 점수제의 기본 원칙과 내용을 보면 명백히 알 수 있다.

대안 전기 공장에서 도입 실시되고 있는 작업반 점수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업반에서 자기에게 부과된 과제를 일별, 주별 및 월별로 수행한 사람들에 한하여, 우선 기능 급수와 가동 시간에 의한 분배를 실시하고 나머지 분을 작업반의 개별적 성원들이 취득한 점수에 의하여 나누어 준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ㄱ) 개별적 성원들의 로임에 대한 1 차 계산(기본 도급 임금)=기능 급수에 따르는 시간당 임금 기준액× 그 사람의 가동 시간

ㄴ) 개별적 성원들의 로임에 대한 2 차 계산(기본 도급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

= (작업반이 번 총 도급 임금액－작업반에서 1 차로 계산된 기본 도급 임금 총액) / 작업반이 취득한 총 점수 × 그 사람이 취득한 총 점수

이로부터 작업반 점수제를 도입한 현 분배 방식과 종전의 분배 방식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 차이는 지난 시기 반도급 부문에서 로임 분배의 유일한 척도로 된 것은 기능 급수였고, 개인 도급 부문에서의 그것은 도급 단가였는데 이제는 두 부문에서 다같이 기본 도급 임금에 대해서는 기능 급수에 의해서, 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 급수와 도급 단가가 함께 고려되고 있는 점수에 의하여 분배되는 점이다.

점수제의 도입은 개인 도급제나 반도급제가 기초하고 있는 원칙, 일한 것만큼 번 것 만큼 주며 보다 많이 일한 사람에게는 보다 많은 보수를 주는 사회주의 분배 법칙의 요구를 더 정확히, 더 완전히 관철하는 것이다.

지난해 대안 전기 공장 주조 직장 설비 작업반의 임금 분배 정형에 대한 초보적인 분석에 의하면 7~8급공들의 월 평균 가동 시간은 3분의 2도 못 되는데 월 수입은 일을 더 많이 한 5~6급공들보다 1.3~1.4 배나 더 많은 임금이 차례졌다.

이와 같이 기능 급수만 높으면 일은 적게 하고도 실지 일을 많이 한 중견 기능공들보다 훨씬 더 많은 로임이 차례졌다.

그런데 점수제에 의한 로임 분배를 실시하고 있는 이 공장 림 명규 작업반의 금년 2월 임금 분배 정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체로 6급공은 종래 분배 방식 대로 계산하면 6.2급공의, 5급공은 5.3급공의, 4급공은 4.5급공의 로임액을 분배 받았다.

또한 작업반적인 로임 총액은 증가되는 가운데 7~8급공들의 로임 합계액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5~6급공의 중견 기능공들의 로임은 크게, 그리고 3~4급공들의 로임은 좀 적게 장성하였다.

그리고 로임 총액이 절대적으로는 장성되였으나 상대적으로는 저하된 7~8급공들 속에서도 일을 많이 한 개별적인 작업반원들은 종전에 비하여 보다 많은 로임을 받았다. 이것은 점수제 도입이 높은 기능공들에게도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하여 주는 것이다.

대안 체계가 심화 발전하는 행정에서 나타난 작업반 점수제의 기본 특징은 개별적 로동자들이 받는 로임 중에서 기본 도급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래와는 달리 점수라는 새로운 분배 척도에 의하여 그것을 나눠 준다는 데 있다.

이것은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채취 공업 부문과 농업 부문에서 이미 도입 리용되고 있으며 생산력 발전을 위한 거대한 추동적 역할을 놀고 있는 작업반 우대제의 기본 원칙, 우대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큰 보수를 주거나 농업 부문에서와 같이 그 성원들에게 다 분배해 주는 원칙을 대안 체계가 확립된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게 훌륭히 적용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반 점수제는 대안 체계에 상응하게 공업 부문에서 작업반 우대제의 정신을 심화시킨 것이다.

작업반 우대제가 도입된 그때로부터 우리 나라 공업 분야에서는 점수라는 새로운 경제적 범주가 산생되였다.

로임 분배의 보충적 수단으로 나타난 점수는 지금 생산 발전을 위한 커다란 추진력으로 되고 있다.

그것은 비단 생산에서 로동자들이 지출한 로동의 척도로서, 또한 작업반이 번 로임 총액에서 그들의 몫을 규정하는 분배의 수단으로서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점수는 지금 더욱더 넓은 범위에서 (공장에서 일체 상금을 분배하는 척도로서)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당과 국가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 주는 사회적 평가의 기준으로 리용되고 있다.

대안 체계 하에서의 작업반 점수제의 실시—이것은 로임 조직과 로임 분배에서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작업반 점수제의 도입은 생산자 대중으로 하여금 생산 령역에만 아니라 분배 령역까지도 포괄하는 공장, 기업소 사업 전 령역에 직접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였으며 기업 관리에서 일'군들의 열성과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작업반 점수제의 실시는 대안 체계를 가일층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다.

작업반 점수제의 위력은 대안 전기 공장의 많은 작업반들과 직장들의 사업에서 뚜렷히 표현되였다.

대안 전기 공장 가공 직장에서 전 직장적으로 작업반 점수제를 도입한 금년 4월과 도입 이전인 3월의 사업 정형을 대비한 다음과 같은 자료는 이것을 잘 립증하여 준다.

가공 직장에서의 점수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성 (%)

	1 인당 생산의 장성	그 중: 설비 능력 리용의 제고	그 중: 설비 시간 리용률의 제고	로임 장성률	로동 기준량 수행률: 도입 전	로동 기준량 수행률: 도입 후
직장 평균	138	123	112	125	126.7	151
그중 박 진호 작업반	171.5	146	117	143.5	129	189

상기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직장에서는 점수제를 도입한 이후 직장적으로 생산 발전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금년 4월부터 처음으로 점수제를 도입한 박 진호 작업반에서는 단 1 개월 동안에 로동 기준량을 189%로 수행하고 1 인당 생산을 171.5%로 장성시키는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점수제가 생산 발전을 위하여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대안 전기 공장에서는 이러한 성과에 고무되여 금년 5월부터 반도급 부문, 개인 도급 부문 할 것 없이 모든 부문에서 다 작업반 점수제를 도입하였으며 그의 생활력이 날을 따라 더욱더 커지고 있다.

작업반 점수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로동에 의한 분배를 정확히 실시하여 물질적 관심을 제고하고 일'군들의 생산 의욕을 높이며 그들로 하여금 사업에서 적극성을 발휘케 하였다.

과거에는 로동 정량, 로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 사업이 정량원, 검사원 및 직장장 등 전임 일'군들에 의하여 전적으로 진행되였다.

지금에 와서는 생산자 대중 자신들이 로동 정량을 제정하고 로동 결과를 평가하는 사업의 많은 부분을 스스로 담당 수행하게 되였다.

로동 정량과 그의 평가 사업이 그것을 제일 잘 아는 대중들 자신의 사업으로 됨으로써 그 사업들은 가장 정확한 것으로 되였으며 생산 발전을 더욱 촉진하게 되였다.

또한 작업반 점수제는 로동의 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을 자극함에 있어서 집단적인 물질적 관심이 더욱더 전면에 나서도록 조건 지었다.

대안 전기 공장에서는 분배의 척도로 되는 점수 한 점의 크기를 그 작업반의 계획 수행과 작업조의 사업 성과에 크게 의존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반의 개별적 성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업에서 열성을 발휘하면서 더욱더 집단의 리익에 자기의 생산 활동을 복종시키게 되였다.

또한 작업반 점수제는 작업반에서 집단주의를 일층 배양하며 일'군들로 하여금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더욱 높이게 하였다.

개인 도급에서는 로동자들이 이것을 하면 자기의 보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주로 생각하게 되는데 점수제에서는 계획을 완수한 사람만이 평가 대상으로 되고 또한 작업반적인 계획을 초과 수행하면 할수록 점수 한 점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로동자들은 작업반의 계획을 어떻게 하면 빨리 수행하겠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된다.

또한 점수제에서는 로동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생산자 대중 자신들이 집체적으로 토론하고 정하기 때문에 일'군들 속에서 집단주의 생활 기풍을 더욱더 배양하게 한다.

작업반 점수제는 한편으로는 로동에 따르는 분배를 정확히 관철하여 일'군들의 물질적 관심을 강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로임 조직에 대중을 인입하고 로동 정량, 로동에 대한 평가를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함으로써 보다 큰 도덕적 관심을 낳았다.

이 모든 것은 작업반 점수제가 대안 체계의 심화 발전 행정에서 축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나온 창조물이며 생산력 발전의 강력한 추진력이라는 것을 잘 말하여 준다.

《작업반 점수제》 실시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작업반 점수제는 사회주의 생산 관계의 한 중요 측면인 분배 관계의 공고 발전에서 전환의 계기를 열어 놓은 새로운 싹이다.

항상 그러한 바와 같이 새것은 낡은 것과의 투쟁을 통하여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발전한다.

위대한 생활력과 거대한 전망을 가지고 산생된 작업반 점수제는 지금 일부 일'군들의 주저와 리해 부족으로 하여 그의 급속한 일반화가 적지 않게 지연되고 있다.

이 부문의 일'군들은 우리 나라 분배 관계 발전에서 새것인 작업반 점수제의 본질과 우월성을 깊이 리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잘 알 때에 우리 나라 경제 사업에서 현 시기 힘을 집중하여 풀고 넘어 가야 할 기본 고리인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 강화할 수 있고 우리의 생산 발전을 보다 급속히 촉진할 수 있다.

작업반 점수제를 발전시키고 생산 발전에서 그의 우월성을 발휘시키지 위하여서는 이와 함께 몇 가지 실무적 문제들의 해결이 요구된다.

첫째로 그것은 작업반 점수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점수의 항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대안 전기 공장에서는 일(日) 평가 항목을 5 개로, 월(月) 평가 항목을 8 개로 설정하고 있다.

대안 전기 공장에서의 일 및 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일 평가 항목—1) 생산 실적 2) 설비 공구 관리와 그의 리용 3)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다른 사람에 대한 협조 및 어렵고 힘든 일의 수행) 4) 생산에서 걸린 문제에 대한 해결 5) 로동 보호와 안전 규정의 준수.

월 평가 항목— 일 평가 항목 5 개와 6) 기술 혁신과 창의 고안 7) 기술 기능 수준의 향상과 기능 양성 8) 제품의 질 제고와 절약.

이상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평가 항목은 부문과 사업이 다름에 따라

각이할 수 있지만 반드시 고려되여야 할 문제는 될수록 진행 중인 생산 및 앞으로의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국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매 평가 항목의 크기, 특히는 생산 실적을 제외한 기타 항목들 합계의 크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금년 4월에 대안 전기 공장 가공, 소재 및 조립 직장들과 개별적 작업반들에 분배된 총 도급 임금 및 기본 도급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기타 항목들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률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직장 및 작업 반 명	총 도급 임금 중에서 기타 항목들의 합계에 의한 분배 몫의 비중	기본 도급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기타 항목들의 합계에 의한 분배 몫의 비중
가공 직장 규격품 김 영택 작업반	0.13	0.4
가공 직장 대형 김 룡현 작업반	2.9	7.8
가공 직장 평균	0.7	2
변압기 직장 대형 중간 작업반	1	4.1
제관 직장 대형 절단 작업반	13	49
조립 및 소재 직장의 대표적인 몇개 작업반 평균	5.6	28

대안 전기 공장의 경험은 작업 대상이 작고 그 공정이 세분화된 부문에서는 기타 항목들 즉 현행 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항목들의 합계가 차지하는 몫을 극히 작게 하고, 작업 대상이 크고 많은 사람들의 협력에 의하여서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문에서는 그의 몫을 좀 크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작업 공정을 세분화하고 그것을 개선함에 따라 진행 중인 현 생산에 보다 큰 자극을 주기 위하여 그의 몫을 더욱더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세째로 그것은 점수 계산을 비롯한 점수제 운영 조직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이다.

운영 사업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계산의 복잡성을 피하는 방책을 찾아내고 작업반에서 점수 평가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조건을 지어 주는 동시에 그것이 작업반에서 생활화되도록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작업반 점수제를 성과적으로 도입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이외도 해결되여야 할 문제들이 허다하다. 특히 부문과 기업소의 특수성에 따라 그것은 더욱 많을 것이다.

작업반 점수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제기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만 그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생산 발전에서 남김 없이 발휘될 것이다.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 도입에서 얻은 몇 가지 경험

박 창 권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력포 목장에서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부터였다.

그 때로부터 지나 온 3 년,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간 우리 목장의 생산 경영 활동에서는 거대한 전변이 일어 났다. 오늘 력포 목장에서 이룩되고 있는 성과와 경험은 국가 농목장들에서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를 실시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가 얼마나 거대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대로 말하여 주고 있다.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는 국가 농목장 경리 운영의 훌륭한 방법

다음의 지표는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를 실시한 이후 우리 목장에서 생산 경영 활동이 전반적으로 부단히 개선되여 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지표 \ 년도	1959년	1961년	1962년
총 생산액	100	303	327
종업원 1 인당 생산액	100	143	167
로동자 1 인당 월 평균 로임	100	176	178
확대 재생산 기금	100 *	132	148

* 1960년임.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를 도입하기 이전인 1959년을 100으로 할 때 총 생산액 지표는 1960년에 1.8 배, 1961년에는 3 배 이상, 1962년에는 무려 3.2 배 이상으로 급격히 장성하였다.

물론 1961년에 총 생산액이 특히 급격히 장성하게 된 것은 2 개의 주변 협동 농장이 우리 목장에 편입되게 된 사정과도 관련되고 있다.

그러나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은 경제 토대가 극히 미약하였던 협동 농장들이 편입되고 로동자 수가 훨씬 많아진 1961년에도 1959년에 비해 근 1.5 배로 장성하였으며 그 후 계속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의 실시가 목장의 경리 운영을 전반적으로 급속히 개선함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놀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오늘 우리 목장은 수익성이 높은 기업소로 전환되였으며 로동자들의 월 평균 로임은 1959년에 비하여 1.7 배 이상으로 장성하였다.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 도입 이후 불과 2~3 년 동안에 우리 목장에서 달성한 이러한 성과의 주되는 요인은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가 생산에 대한 일'군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고도로 높이는 국가 농목장 경리 운영의 훌륭

한 방법이라는 데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생산자 대중의 로력적 열성과 창조적 적극성을 고도로 발양시키는 것은 생산의 발전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생산에 대한 일'군들의 열성과 창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정치 사상 의식을 부단히 높이면서 이에 물질적 관심성의 원칙을 합리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

국가 농목장들에서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는 바로 로동의 결과에 대한 일'군들의 물질적 관심을 높이고 사회주의 분배 법칙의 요구를 가장 합리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된다.

작업반은 농업 생산이 실질적으로 조직되며 완성 생산물이 이루어지는 생산의 기본 단위이며 따라서 생산 결과에 대한 계산과 평가도 작업반을 단위로 할 때 정확히 진행할 수 있다.

국가 농목장들에서 바로 이러한 작업반을 단위로 하여 독립 채산제를 실시하는 것은 매개 로동자들의 로동 결과에 대한 평가를 생산의 최종 결과와 밀접히 결합시켜 정확히 실시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년간을 통하여 수행한 생산 활동의 모든 결과에 대하여 높은 물질적 관심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를 실시하기 이전에는 생산에 대한 로동자들의 물질적 관심을 크게 자극하지 못하였다. 우선 개별적 로동자들의 로임이 그들이 수행한 생산 활동의 실제적 결과와 관계 없이 그때그때 수행한 작업량과 출근 일수에 의하여 지불되여 왔었다.

이로부터 례하면 자급 비료도 많이 내고 김도 여러 번 매여 옥수수의 정당 수확고를 4 톤 이상이나 높인 작업반 성원이나 거름은 적게 내고 김은 날림식으로 매여 정당 수확고를 2.8 톤 밖에 내지 못한 작업반 성원이나 로임 지불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결과 일부 로동자들 속에서는 그 날 그 날의 출근 일수나 보장하면 되고 일을 잘 하거나 못 하는 데 대해서는 매일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 조건에서 로동자들이 단위당 생산성의 제고, 원가 저하, 생산물의 실현 등 목장의 전반적 살림살이에 대하여 높은 물질적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를 도입한 이후 이러한 불합리성은 제거되였다.

이제 와서는 매개 작업반들이 자기에게 고정 배치된 로력과 토지, 농기계 등 생산 수단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작업반의 생산 경영 활동을 책임적으로 조직 진행하고 있다. 일체 생산비를 제외한 작업반의 년간 총 수입을 가지고 반내 성원들의 로임을 지불하며 그 나머지 부분은 확대 재생산을 위한 축적을 남기고 모두 상금으로 분배한다.

이와 같이 매 작업반 성원들의 년간 수입의 크기가 년중을 통한 그 작업반의 생산 결과에 직접 의존하게 된 것만큼 최소한의 지출로써 가장 큰 생산 성과를 얻기 위한 그들의 투쟁은 어느 때보다 강화되게 되였다.

더우기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의 실시는 로동에 대한 집단의 관심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물질적 관심의 원칙을 로동자들을 집단주의 정신으로, 국가와 사회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 사업과 더욱더 밀접히 결합할 수 있게 하였다.

오늘 우리 목장의 모든 로동자들은 자기 집단, 우선 자기 작업반의 경영 활동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생산에 참가하고 있으며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누구보다도 더 많이,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하여 한결 같이 떨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초여름, 거의 모든 작업반들에서 사료가 부족하게 되였을 때 아무런 보수도 타산함이 없이 자원적으로 동원되여 풀베기 운동을 진행함으로써 150 여 톤의 청사료를 보장한 제 4 작업반 농산 분조원들을 비롯한 많은 로동자들, 이전 같으면 그대로 버렸을 젖소들이 먹다 남은 찌끼를 모아 100 여 마리의 돼지를 두당 100 키로그람이 넘게 길러 낸 제 1 작업반의 젖소 관리공들, 지난해 몇 마리의 돼지가 배앓이에 걸렸을 때 도토리죽이 좋다는 말을 듣고 남몰래 수십 리의 길을 걸어 끝내 도토리를 얻어다 돼지의 배앓이를 방지한 제 5 작업반의 나어린 처녀 축산 관리공들… 오늘 화목한 한 가정으로 단합된 우리 목장의 작업반원들은 모두가 앞을 다투어 일을 찾아 하며 호상 일'손을 도우면서 작업반의 살림을 훌륭히 꾸려 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해 우리 목장에서는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를 실시하기 전 해인 1959년에 비하여 육류 생산은 8.9 배, 알곡 생산은 8 배 이상, 계란 생산은 6.2 배로 각각 장성하였다. 이미 우리 목장에서 경지 정보당 육류 생산량은 720 키로그람의 수준에 도달하였다.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를 실시한 이후 우리 목장에서는 전반적인 기계화 수준을 제고하는 데서도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농산 및 축산 작업에서 전면적 기계화의 실현—이것은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를 도입하고 그를 성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농목장들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목장에서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를 실시할 것을 교시하시면서 생산 조직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농산 및 축산 작업에 기계화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를 도입하기 이전에도 우리 목장에서는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대적 농기계를 적지 않게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들은 효과적으로 리용되지 못 하였다. 따라서 농업 생산의 기계화 수준은 낮은 형편에 있었다.

그러나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를 실시하면서 뜨락또르를 매개 작업반에 고정 배치하고 그 운전수들의 로임을 작업반의 생산 성과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기계화 작업의 질을 제고하고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었으며 농기계들의 리용률을 보다 높일 수 있었다.

오늘 우리 목장에서는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비하여 로동자 1 인당 관리 면적이 2 배 이상으로 장성하였으며 동력 기계에 의한 농산 작업의 기계화 수준은 77.2%에 도달하였다. 축산 부문에서는 사료의 절단, 분쇄, 운반 등을 비롯한 거의 모든 작업이 기계화되였다.

실로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의 실

시는 우리 목장의 생산 경영 활동에서 혁신을 일으키게 한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와 경영 조직

목장 단위의 독립 채산제로부터 작업반 단위의 독립 채산제로의 이행은 목장 경리 운영 조직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 올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가 과거 목장 단위로 독립 채산제를 하면서 작업반에서는 내부 채산제를 실시하던 당시의 경리 운영 조직을 그대로 두고서는 성과적으로 실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작업반 조직으로부터 목장 관리 부서 사업 전반에 걸쳐 새 조건에 맞게 근본적 개편이 진행되는 때라야만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가 성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우리의 경험은 특히 독립 채산제 단위로서의 작업반을 잘 조직하며, 내부 계획화와 계산 조직을 정확히 하는 문제가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선 작업반을 어떻게 조직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

독립 채산제 단위로서의 작업반은 자기의 일체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며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생 자결의 원칙에서 조직되여야 하며 그의 모든 활동은 국가 농목장들의 기본 과업인 고기 생산에 복종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김 일성 동지께서 교시하신 바와 같이 농산과 축산을 결합한 종합 작업반을 만드는 것이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작업반 내의 모든 성원들이 축산물 생산에로 관심을 집중할 수 있으며 작업반의 채산도 맞춰 나갈 수 있다.

우리는 종합 작업반을 조직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작업반의 규모를 정확히 설정하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리였다.

작업반의 규모를 설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작업반의 생산 방향과 수송 조건, 현재의 기계화 수준 및 앞으로의 발전 전망 등을 정확히 타산함으로써 매 작업반들 간의 균형이 옳게 유지되도록 하는 데 주의를 돌렸다. 물론 작업반의 규모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곧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매개 작업반들 간에 농산 및 축산 규모와 로력, 토지, 농기계, 역축 등 생산 수단들의 호상 관계가 큰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은 작업반 호상간의 균형을 유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우리 목장에서는 종합 작업반을 조직하면 초기에 렵지 조건만을 고려하여 종래의 자연 부락 단위로 되여 있던 작업반들을 일률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농산과 축산 간의 규모에서 심한 편차를 가져 왔던 사실도 있었다. 우리는 수차에 걸쳐 작업반별 수입 지출 발란스를 작성하고 그를 대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작업반들 간의 균형을 옳게 유지할 수 있었고, 작업반 자체의 규모와 전망 등을 정확히 규정할 수 있었다.

작업반 내부 로동 조직 형태인 분조는 부문 간의 련계를 보장하며 작업반에 대한 지도 통제 사업과 기계화에 의한 작업 조직에 유리하게 대체 15 명 내외로 개편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기간의 경험은 종합 작업반을 조직함에 있어서 작업반 내의 축산 부문과 농산 부문 간의 로력 배치를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의 조건에서 매개 작업반들이 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사료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충당하여야 할 필요성과 중요하게 관련되여 있다.

우리 목장의 경험에 의하면 독립 채산제의 조건 하에서 종합 작업반 내 농산과 축산 간의 력량(로력) 관계를 대체로 3:1의 비률로 설정하는 것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외에도 종합 작업반을 조직함에 있어서 우리는 본장의 관리 기구를 극력 축소하고 작업반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종전에 본장에 있던 기술 일'군들(농산과 축산 부문 기술자 및 기계 부문 일'군들)과 통계원들을 매 작업반에 각각 1 명씩 배치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목장의 모든 작업반들에서는 생산 조직과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 계산 통계 사업 등을 자립적으로 담당 수행해 나가고 있다.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의 실시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내부 계획화 사업을 부단히 개선하는 문제이다.

특히 정확한 계획 지표의 설정, 작업반들의 수입 규모의 합리적 설정과 작업반 별로 확대 재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들을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문제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계획 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로력과 자재를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선진 기술을 부단히 도입하며 일'군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데 중요한 관심을 돌렸다.

이것은 계획 지표 자체가 작업반의 온갖 내부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로동자들을 불러 일으킬 수 있게 하여 준다.

또한 계획은 생산 발전을 추동하고 예비를 백방으로 동원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의무를 수행함과 함께 로동자들의 분배 몫을 높여 그들의 생산 의욕을 더욱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방향에서 세우는 것이 중요하였다.

우리 목장의 경험에 의하면 계획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교적 높게 세우고 그를 완수하도록 사업을 옳게 추진시키는 것이 생산을 장성시키고 작업반의 채산을 맞추며 로동자들의 수입을 높이는 데 있어서 동원적 역할을 놀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계획이 여유 있게 수립된다면 계획 수행률은 높으나 1 인당 생산액은 낮을 수도 있으며 따라서 로동자들의 분배 몫은 작아질 수 있다. 왜냐 하면 로동자들의 수입은 계획 수행률에도 의존되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수행한 생산 결과 즉 1 인당 생산액의 크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또한 부문 간의 결합이 옳게 보장되도록 하며 작업반 간의 수입에서 균형성을 유지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있어서 반드시 지역적 차이로부터 오는 수익성에서의 편차는 될수록 축소시키는 방향에서 작성되여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함이 없이 계획을 작성한다면 자연적 차이로 인하여 어떤 작업반은 경영

손실을 보는데 다른 작업반은 리득을 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로동자들의 생산 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작업반에 대한 생산 계획 작성에서 매개 작업반들이 그의 가축 규모에 맞게 사료를 자급 자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입 자재는 극력 축소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작업반 자체가 사료 작물을 자급 자족한다는 것은 어느 경우에나 반드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례하면 타 작업반에 비하여 축산 규모가 크고 우유 생산이 집중되여 있는 작업반에서는 청애 사료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으며 따라서 그 수요를 작업반 자체가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 만일 그의 수요를 그 작업반 자체가 모두 해결하도록 계획이 작성된다면 로력에 대한 긴장성을 면할 수 없으며 작업반의 채산을 맞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산 규모가 작은 린접한 작업반들에서 청애 사료를 재배하여 그에 대한 수요가 많은 작업반에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또는 축산 규모에 따르는 차이를 극복하고 작업반 간의 수입에서의 균형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외에도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의 계획 작성에서는 반드시 확대 재생산이 보장되도록 기본 생산용 가축을 계통적으로 증가시키며 장성하는 축산물 생산에 적응하게 사료 폰드를 조성하는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에 있어서 정확한 계산 조직은 매개 작업반들에서 일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과 경영 활동의 결과를 밝혀 내며 그를 옳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본장과 작업반 간, 작업반 호상간의 거래 계산 체계를 확립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우리 목장에서는 전 목장적인 수입 지출 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종전의 계산 체계와 함께 작업반 별 수입 지출 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계산 체계를 확립하고 작업반 단위로 독자적인 발란스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본장과 작업반 간의 대조 확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

부기 계산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자금의 지출을 극력 절약하고 투하된 자금을 짧은 시일 내에 회수하며 적은 자금으로 많은 생산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매개 작업반들에서 생산물의 실현과 함께 채권에 대한 정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며 자재의 기준 이상의 소비 현상들을 근절하도록 통제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작업반 일'군들의 계산 실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기실을 중심으로 실무 강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실지 현장에서 계산 상 실무적 문제들을 풀어 주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실무 강습에서는 작업반장들과 통계원, 기술자들, 분조장들께 주로 시초 계산과 경상 계산 방법, 원가와 그의 구성 요소, 원가의 저하 방도 등을 차근차근 알려 주었으며 동시에 계획부와 부기실 일'군들로 계산 방조 그루빠를 조직하여 현장에서 계획 수립과 시초 계산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

제를 훌륭히 운영해 나갈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매개 작업반들에서는 전체 성원들이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를 성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계산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지로 복잡하고 힘든 계산들을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매 작업반 별로 그들이 수행한 월간 생산 경영 활동 결과와 매 성원들이 수득한 등록 로임 수준을 정상적으로 공시해 줌으로써 그들의 생산 열의를 더욱 자극케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목장에서는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 원칙에 립각하여 기업소의 모든 경영 활동을 조직 진행함으로써 광범한 로동자들을 생산과 기업 관리에 주인답게 참가시킬 수 있게 되였고 작업반원들 자신이 자기의 살림을 독자적으로 꾸려 나갈 수 있게 되였다.

* *

지난 기간 우리 목장에서 달성한 성과는 국가 농목장들에서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를 실시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초보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를 더 잘 운영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작업반의 경리 운영에 대한 목장 관리 부서들의 지도를 개선하며 독립 채산제 단위로서의 작업반의 자립성과 책임성을 보다 제고하는 것 등은 당면하여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다.

목장의 관리 운영에서 대안 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담보로 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당 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작업반의 계획 작성, 생산 및 재정적 지도, 자재의 기동적인 현지 공급, 로동 행정 사업, 후방 공급 사업 등 모든 부문에서 우가 아래를 책임지고 도와 주는 체계를 보다 철저히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작업반과 그 성원들의 자립성과 책임성을 높여 주기 위하여 작업반을 단위로 하는 발란스 위원회의 운영과 작업반장들과 통계원들의 기업 관리 수준을 높여 주기 위한 실무 강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현장에서 실무 계산 방조 그루빠들의 역할을 제고하는 데도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오늘 우리 목장의 모든 로동자들은 국가 농목장 경리 운영의 새로운 방법인 작업반 단위 독립 채산제의 실시에서 달성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여 육류를 비롯한 축산물과 농산물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자기들 앞에 부과된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필자는 세포 목장 지배인임)

각본은 워싱톤에서, 무대는 서울

김 경 현

최근 서울에서는 하나의 기괴한 연극이 벌어지고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오뉴월 날씨처럼 서울의 위정자들은 조석으로 언동을 달리하고 있다. 최근 2 개월간만 하여도 박 정희는 《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 《군정을 4 년간 연장한다》, 《군정 연장을 보류한다》는 등으로 루차에 걸친 《중대 성명》을 련발하면서 자기가 한 말을 뒤집어 엎고 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놀음인가?

동서 고금에 소위 《정치》를 한다는 데서 일찌기 이런 처사가 있었다는 례를 우리는 알지 못 한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이것이 엄연한 사실로 되고 있다.

모든 현상에는 까닭이 있고 원인이 있는 법이니 이 놀음에도 응당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고 꾸며 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박 정희가 주역을 놀고 있는 이 연극은 대체 무엇을 노리고 있으며 그 각본은 누가 어데서 꾸며 내는 것이며 연출은 누가 담당하고 있는가? 아무도 무대에 나와서 이를 소개하는 자는 없으나 나타난 사실들을 가지고 밝혀 보기로 하자.

워싱톤의 지배층은 남조선에서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군사 파쑈 정권을 수립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남조선 인민들의 더 큰 분노와 반항을 불러 일으킬 것은 뻔한 일이였고 세계 인민들의 규탄의 목소리도 또한 무서웠다.

이러한 처지에서 그들은 남반부 인민들의 분노와 불만을 무마하며 세계 여론을 기만할 목적으로 군사 쿠데타 직후부터 《민정 이양》이라는 놀음을 꾸미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들은 박 정희-김 종필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 독재에 몇몇 《민간인》들을 끌어 넣는 방법으로 《민의》의 외피를 씌워 군사 독재를 무기한 연장하려고 하였다.

워싱톤의 책략에 따라 《솜씨 있는》 서울 주재 미국 대사 버거는 박 정희와 더불어 빈번한 회담을 진행하여 오던 끝에 1961년 8월 6일 동해안의 《화진포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워싱톤의 기본 방침을 그에게 전달하였다.

《화진포 회담》에서 워싱톤의 훈령을 받은 박 정희는 1961년 8월 12일 《민정 이양》에 관한 《중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그는 1963년 8월까지에 《민간인 정부에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언명하였다.

워싱톤의 지배층은 《8.12 성명》이 공포되자 미리 준비하여 두었던 공식 성명을 즉각 발표하여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의 회복에 고무적인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극구 찬양하는 동시에 마치도 《민정 이양》을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박 정희-김 종필을 워싱톤으로 호출한 것은 바로 이러한 움직임의 중요한 표현이였다.

워싱톤 지배층은 박 정희를 호출하여

《한미 거두 회담》이라는 간판 밑에 《극진한 환영》과 《두터운 신임》을 표시하고 《공동 성명》까지 발표하였으며 남조선에서의 미제 식민지 통치를 공고화하는 방향에서 《민정 이양》 놀음을 꾸밀 데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시를 주었다.

상전의 《고무》와 《애무》에 감지덕지한 박 정희는 《귀국이 굽히지 않는 결의로 우리를 령도하고 있는 데 대하여 신에 감사를 드린다》느니, 《타국에 와 있다는 기분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느니 하면서 주구로서의 본색을 온 천하에 드러내 놓았다.

뒤'이어 워싱톤 지배층은 다시금 당시 괴뢰 중앙 정보 부장이였던 김 종필을 호출하여 남조선 정세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고 소위 《민정 이양》을 위한 모의를 거듭하였다.

김 종필은 미 국무 장관 러스크, 법무 장관 로버트 케네디, 중앙 정보국장 맥컨, 국무성 정책 위원회 위원장 로스트 등 워싱톤의 고관들과 밀담하였다. 이 밀담에서 그는 《앞으로 4 년간은 혁명 주체 세력이 민간인과 함께 정치에 참여하는 과도적 성격의 민정》을 실시할 데 대한 문제, 《민간 정부의 구조》와 그 인원, 새로 조직할 《정당》의 성격과 구성 성원, 《헌법 개정》, 《대통령 및 국회 의원 선거》 등 제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미국 통신까지도 김 종필은 《민정 복귀 계획을 포함한 혁명 정부의 앞날의 정치 구상》에 대한 워싱톤의 지시를 받았다고 시사하였다. (《유피아이》 1962. 10. 30)

당시 서울 《합동 통신》도 《민정 이양》 놀음이 워싱톤의 계책에 의하여 감행된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남조선에서 《헌법 개정》, 《대통령, 국회 의원 선거》, 《정치 활동 시기》 등 세부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계획은 현재 방미 중인 김 종필 중앙 정보 부장의 귀국과 더불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라고 보도하였다. (1962. 11. 17)

워싱톤의 지시에 따라 서울의 괴뢰들은 《민정 이양》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시켰다. 우선 《민정》의 성격과 구조를 규정한 개정 《헌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착수하였다.

워싱톤 지배층은 어용학자 후란쯔와 에메슨을 파견하여 남조선에서의 식민지 통치를 합법화하는 기본 도구인 괴뢰 헌법을, 현 군사 테로 통치를 그대로 연장하는 방향에서 개정하도록 지휘 감독케 하였다.

개정 《헌법안》에서 그들은 파쑈 테로 독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키는 한편 괴뢰 국회를 단원제로 하고 무소속 인사들의 출마를 금지하였으며 1~2 개의 보수 정당만을 형식상이나마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반대파 없는 《국회》를 만들려고 하였다.

결국 이것은 개정 《헌법안》에서 현 군사 테로 통치 기구를 그대로 보존하는 동시에 박 정희를 장차 수립될 《신정권》의 《대통령》으로, 《민주 공화당》을 《여당》으로 삼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였다. 따라서 이는 《군정 연장》을 공공연히 합법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미국 신문 《내슈널 가디언》까지도 워싱톤의 계획에 따라 박 정희가 《군복을 사복으로 갈아 입고 자기 통제 하에 있는 정치 기구를 그대로 가진 채 자신이 대통령으로》 될 것을 노리면서 광대 놀음과 같은 《국민 투표》로써 《새 헌법》을 날조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워싱톤 지배층은 소위 《국민 투표》를 통하여 사기와 협잡의 방법으로 괴뢰 헌법을 개정케 한 후 1월부터 《정치 활동 재개》케 하고, 4월에는 《대통령 선거》를, 5월에는 《국회 의원 선거》를, 8월에는 《민정 이양》을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괴뢰들로 하여금 갖은 수단을 다하여 박 정희를 우상화하도록 하였다.

례컨대 김 종필은 박 정희를 《한국의 령도자》요, 《지도자》요 하면서 《그 자신은 민정 이양 후 정치와 손을 끊기를 원하고 있으나 한국의 현실적 조건으로 보아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괴뢰 공보실장이

란 자는 지어 정감록까지 끄집어 내면서 《박 의장의 대통령 출마는 성태성의 지시니 어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박 정희 자신도 《차기 대통령은 유능한 정치인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나서 《저는 다시는 군(軍)으로 돌아 갈 생각은 없다》고 하면서 자기를 괴뢰 대통령으로 선출해 줄 것을 암암리에 구걸하는 비루한 수작까지 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사태 발전은 워싱톤의 계획 그대로는 진전되지 않았다.

전대 미문의 테로 통치와 경제의 전면적 파탄으로 인한 심각한 식량 위기와 정치적 무권리로 하여 인민들 속에서는 군사 《정권》을 배격하는 기세가 급격히 높아 갔다.

남조선에서 금년도 식량의 절대 부족량은 무려 1천만 석(약 170만 톤)에 달한다. 년초부터 주요 도시들에서는 식량이 제대로 반입되지 않아 례년에 없었던 식량 기근에 봉착하였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비롯한 각 도시에로의 매일 량곡 반입량은 수요량의 30~50%에 불과하다.

량곡을 비롯한 대부분의 통제 상품은 시장에서 이중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바 그의 가격은 작년 동기에 비하여 20~40% 폭등하였다.

이러한 경제 위기로 하여 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인민들은 《생활 필수품이 일익 상승하고 절량 상태는 우심하여지니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공공연하게 불평을 하고 있다. 그들은 미제와 군사 《정권》의 파쑈적 폭압과 무자비한 략탈을 반대하여 소동을 일으킬 한계점에까지 도달하고 있다.

인민들의 반미, 반《정부》 기세에 편승하여 야당파들은 남조선에서 식량 기근, 물가 앙등의 책임을 박 정희에게 추궁하면서 군사 통치배의 《민정 참여》를 《혁명 공약》 위반이라고 일치하게 반대하여 나섰다. 그들은 나아가서 《실질적인 군정의 종식》, 《중앙 정보부의 해체》, 《선거 기일 연기》, 《정치 활동 정화법 해당자의 전면 해제》, 《헌법, 선거법, 정당법의 개정》, 《민주 공화당 사전 조직의 백지화》를 강경히 요구하였다. 야당파들은 이러한 자기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극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만약 미제가 새로운 흉계를 꾸미지 않는다면 사태는 더욱 엄중하게 되리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였다.

여기에서 워싱톤 지배층은 박 정희로 하여금 《2.18 성명》에서 《민정 불참》을 서약하게 하고 마치도 《민정 이양》을 실현하며 그 자신은 은퇴할 듯이 가장하게 함으로써 곤난한 처지를 모면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대중에 대한 기만이고 우롱이였다. 《2.18 성명》에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첨가되여 있었다. 즉 차기 《정권이 5.16 정신을 받들어 혁명 과업을 계승》하여야 하며 저들이 《기용한 공무원의 신분을 계속 보장》하여야 하며 또 《구태 의연한 정쟁이 재현되고 정치적 혼란이 조성될 때에는 민정 불참을 페기》할 수 있다고.

이것은 그들이 사실상 현 군사 《정권》이 수립한 파쑈 통치 질서를 《차기 정권》에서 그대로 유지할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에 대하여는 서울발 《베페아》 통신까지도 《2.18 성명에서 지적된 조건들이 앞으로 민간 정부의 지도권에 대한 박 정희의 요구를 배제》하지 않았다고 썼다.

《민정 불참》이라는 《2.18 성명》을 통하여 숨돌릴 여유를 얻은 워싱톤 지배층은 《군정 연장》을 위한 새로운 공세에로 넘어 갔다.

그들은 군사 깡패들을 사촉하여 남조선에서 《군정 연장 데모 사건》, 《군정 연장 삐라 사건》, 《군사 쿠데타 음모 사건》 등을 련일 조작케 하였다.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버거는 3월 15일 박 정희를 비롯한 군사 깡패 두목들을 《만찬회》에 초청하고 박 정희를 추켜 세우면서, 《2.18 후 극도로 혼란해진 한국 정정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에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실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로이 인식케 하였다》(《동양 통신》 1963. 3. 15)고 말하였다.

《만찬회》에서 상전의 지령을 받은 박 정희는 바로 그 이튿날 《4 년간 군정 연장》에 관한 《3.16 성명》을 발표하였다.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연극은 대중을 격분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앙양되여 오던 반미 반《정부》적 진출은 《군정》을 4 년간 더 연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3.16 성명》을 계기로 하여 급격히 강화되였다.

3월 19일 서울에서는 삼엄한 경계 속에서도 서울 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수천 명의 인민들이 《3.16 성명》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집회를 진행하였으며 29일에는 대학생들이 《자유 수호 궐기 대회》를 열고 《군정 연장을 결사 반대한다》, 《우리의 민족적 자주적 민주 력량을 존중하라》는 등 강력한 구호를 제기하여 나섰다.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기세가 고조되자 워싱톤 지배층은 버거에게 새로운 지시를 주었다. 버거는 《군정 연장》을 선포한 《3.16 성명》이 마치도 박 정희 개인의 처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정상배들을 찾아 다니면서 그들을 사촉하여 《군정 연장》을 반대하도록 하였다. 한편 미 국무성 대변인과 백악관 소식통들은 공식, 비공식 담화에서 《한국의 민주 정치 회복》을 위하여 《군정 연장》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듯이 가장하였다. 그리고 워싱톤 지배층은 박 정희를 구슬려 4 년간 군정을 연장할 데 대한 《3.16 성명》을 9월까지 보류한다는 《4.8 성명》을 발표케 하였다.

《4.8 성명》은 사실상 워싱톤 지배층이 남조선에서의 《군정 연장》 기도를 공공연하게 선포한 것이다.

그것은 워싱톤 지배층이 박 정희를 조종하여 금년 8월까지 《민정 이양》을 단행하겠다고 한 최초의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9월까지 현 군사 파쑈 정권을 그대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며 그 이후 사태는 그 때 가서 다시 보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인민 대중 앞에서 서약한 소위 《혁명 공약》까지도 서슴 없이 뒤집어 엎는 자들이 그때에 가서 다시 보자고 한 《성명》을 뒤집어 엎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가 아닐 수 없다.

이 자들은 4 년간 《군정 연장》 여부를 9월까지 보류해 놓고 한편으로는 《5월 동지회》를 조직하고 《민주 공화당》의 재판인 《범 국민 정당》이란 새 정당 결성을 서두르면서 박 정희의 장기 집권을 위한 지반을 구축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연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을 노리고 있으며 어떻게 꾸며진 것이며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명백하다.

모든 사실은 전 창작 집단이 일판하여 《군정》을 끌고 가자고 하며 박 정희를 괴뢰 정권의 두목으로 앉혀 두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미 기세를 억누르기 위해서는 군사 테로 독재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정 이양》이요, 《군정 연장》이요, 《중대 성명》이요 하는 이 모든 연극은 그 각본이 워싱톤에서 꾸며진 것이며 그의 연출은 서울 주재 미국 대사 버거가 담당하고 있으며 박 정희는 대사를 불어 대는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상전의 승인이 없이는 돈 한 푼, 총알 한 발, 휘발유

한 그람도 마음 대로 사용할 수 없는 서울의 괴뢰들이 감히 이러한 연극을 독창적으로 꾸며 낼 수도 없으며 또한 무대에 올릴 수도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연출가로서의 버거의 역할에 대하여 말한다면 미국 《타임》지까지도 《막후적인 외교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1963.4.8)

조령 모개(朝令暮改)하는 《중대 성명》에서 우리는 워싱톤 정책 수립자들의 지휘봉 끝을 따라 다니기에 여념이 없는 박 정희의 가련한 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우리는 남조선에서 걷잡을 수 없이 허물어져 가는 식민지 통치를 수습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워싱톤 지배층의 당황 망조상을 엿볼 수 있다.

실로 서울에서의 빈번한 《중대 성명》은 갈팡질팡하는 워싱톤의 남조선 정책에 대한 기상도(氣象圖)이기도 하다.

보통 우리가 서툰 연극을 볼 때에는 기분이 나쁘고 지루할 따름이다. 그러나 이 연극은 그러한 단순한 연극이 아니다. 이 연극 바람에 남조선 인민들은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을 강요 당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 인민들은 이러한 연극에 속아 넘어 가지 않으며 그로 인한 희생을 더는 참으려 하지 않는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강점이 계속되는 한 《민정》이건, 《군정》이건 식민지 괴뢰 정권으로서의 본질이 달라질 수 없고 자기들의 처지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그들은 《군정도 원치 않고 기성 정치인에게도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부산 일보》 1963.4.19)

바야흐로 남조선에서는 워싱톤 지배층이나 남조선의 위정자들, 정상배들의 《군정 연장》, 《민정 이양》 소동과는 다른 목소리가 더욱더 강하게 울리고 있으며 다른 움직임이 더욱더 힘차게 일어나고 있다.

남조선의 광범한 여론은 미제의 내정 간섭을 반대 배격하고 자생, 자결, 자립을 부르짖고 있으며 반미 투쟁에 힘을 합치고 있다.

그들은 부르짖는다.

《민족의 자립에 가해지는 압력에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참된 안정을 위하여 기백 있는 저항을 펴야 한다.》 (《부산 일보》 1963.3.27)

군사 테로 독재를 연장할 데 대한 워싱톤 지배층의 서툰 연극은 남조선 인민들의 분노를 격발시킬 뿐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 출판물까지도 자인하고 있다. 《미국의 고충을 반영하는 하나의 미봉책인 민간인-군부 련립 정부의 출연은 한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한국 인민들의 새로운 봉기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내슈널 가디언》 1963.3.1)

남조선 사태는 바로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

미제는 라오스 문제의 배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 명 준

오늘 라오스에는 독립, 평화, 중립을 위협하는 엄중한 위험이 드리우고 있다. 1962년의 라오스 문제에 관한 제네바 협정은 란폭하게 유린 당하고 있으며 정세는 또다시 국내 전쟁의 직전에 이르고 있다.

라오스에서의 이러한 긴장된 사태는 동남 아세아의 평화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전체 아세아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

이와 같은 엄중한 사태는 무엇에 의하여 조성되였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미 제국주의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다. 미제는 라오스 문제에 관한 제네바 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라오스의 애국 력량을 분렬시키고 라오스에서 또다시 엄중한 사태를 조성하고 있는 범죄의 장본인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입으로는 라오스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여야 하며 라오스의 중립은 《존중》되여야 한다고 떠듦으로써 마치도 《평화의 사도》인듯이, 중립의 《옹호자》인듯이 가장하려 하지만 라오스에서 조성되고 있는 현 사태와 그에서 담당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역할은 미제야말로 라오스의 평화와 중립을 파괴하며 나아가서는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는 원쑤라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오늘 라오스에서 감행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파렴치한 침략과 간섭 행동은 미제의 침략적 본성이 절대로 달라지지 않았으며 그들의 승냥이의 본성이 조금도 온순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현 사태는 전 세계 인민들에게 미제의 침략 책동에 대하여 최대의 경각성을 높이며 미제의 침략과 전쟁 도발 정책을 제어하기 위하여 가능한 효과적인 모든 방법을 다하여 반제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 더불어 조선 인민은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단호히 규탄하며 반대하고 있다.

* *

라오스에서 오늘 조성되고 있는 엄중한 사태는 라오스를 침략하며 그것을 동남 아세아와 극동 침략의 지탱점으로 삼기 위한 미제의 미리부터 계획된 침략 행동의 산물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 제국주의자들은 작년 7월에 라오스 애국 력량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그들의 무력 간섭이 파탄된 결과에 부득이 라오스 문제에 관한 제네바 협정에 조인하고 라

오스 민족 통일 정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라오스 인민이 독립, 평화, 중립을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커다란 승리인 동시에 라오스에 친미 괴뢰 정권을 수립하며 라오스를 인민 중국과 월남 민주 공화국, 기타 이 지역 평화 애호 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의 전초 기지로 전변시키려던 미제에 대한 심대한 타격이였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라오스에서의 패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지 않았다. 미제의 추악한 계획은 일단 좌절되였으나 그들은 음흉한 침략적 흉계를 버리지 않았다. 미제 호전광들은 침략적 무력 간섭에서 달성하지 못한 것을 정치적 모략에서 얻으려고 꾀하는 한편 라오스에서의 정전을 악리용하면서 계속 침략 준비에 광분하여 왔다.

제네바 회의에 참가하였던 미국 대표 해리만은 라오스에서의 미국의 목적은 《유형(有形) 전쟁을 정치 전쟁으로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본래 미 제국주의자들이 대외 침략에서 군사적 방법과 정치적 모략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엇바꾸어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상투적 수법으로 되고 있다. 그들이 사용하는 이 두 가지 수법은 형태가 다를 뿐이지 본질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이다.

미제가 오늘 라오스에서 노리는 직접적 목적은 중립 세력과 라오스 애국당 력량을 소멸하는 데 있다.

라오스 문제에 관한 1962년 제네바 협정이 조인된 이래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 협정을 계통적으로 위반하였으며 라오스의 평화와 중립을 파괴하기 위하여 라오스에 대한 간섭을 끊임 없이 강화하여 왔다.

미제는 우선 군사적 측면에서 자기의 라오스 주둔 군사 인원들과 추종 국가 군대들을 철수하지 않았으며 일부 철수한 인원들도 메콩강 류역에 배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제는 수 많은 군수 물자들과 무기를 라오스에 끌어 들이였고 침략적 군사 기지들을 증설하고 사반나케트 도당 군대를 대폭 증강하였다. 미제 침략자들은 반동 도당들에게 비밀 군사 원조를 계속하여 왔으며 항공기로 해방 지역에 반동 분자들을 투입하고 그들에게 군수 물자를 계속 공급하였다.

정치적 측면에서 제네바 협정 체결 이후 미제는 수 많은 딸라를 투입하여 동요하는 중립파 내의 일부 장교들을 매수하는 한편 암해 분자들을 중립파 내에 수다히 잠입시킴으로써 라오스의 애국 력량을 약화시키고 분렬시키기 위한 책동을 계속하여 왔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반동 분자들을 사촉하여 암살 사건을 빈번히 벌려 놓고는 그것이 마치도 애국당의 《작간》인듯이 날조함으로써 중립파와 애국당 간의 충돌과 불신임을 야기시키려 하고 있다.

미제와 노사방 도당들이 파테트 라오의 통제 구역인 자르 평원에서 중립파 참모장 봉수반 대좌를 살해하고 《파테트 라오가 중립주의군 고위 장교 수명을 더 죽일 것》이라는 여론을 류포시켰으며 그 후에는 파테트 라오와 중립파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하여 민족 통일 정부 외상 퀴님 폴세나를 암살한 사실은 바로 이를 확증하여 준다.

뿐만 아니라 미제는 라오스에서 군사 쿠데타까지 일으켜 현 민족 통일 정부를 전복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파테트 라오군 총 사령관 신가포는 자기 성명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은 애국자들과 중립파 대렬 내의 평화 옹호 투사들을 살륙하는 데 광분하고 있으며 비엔티안에서 쿠데타를 일으킬 준비를 추진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미제 침략자들은 또한 반동 분자들을 중립파 내에 잠입시켜 중립파의 이름으로 파테트 라오의 진지를 공격케 하는 한편 공격에 대한 파테트 라오의 자위적 조치를 외곡하면서 파테트 라오가 중립파군을 공격하고 있다고 날조하고 있다.

미제는 라오스에 대한 침략의 조약대인 타이에 군사 연습이라는 구실 밑에 미군 전투 부대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려 하고 있는데 이것이 라오스에 대한 무력 간섭과 직접 결부되여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 밖에도 미제는 《라오스 왕국 정부가 군사 물자의 원조를 요청한다면 미국은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중립파 내 반동 계층들을 노사방 도당과 함께 애국 력량을 반대하는 군사적 공격에로 더욱더 내몰며 국내 전쟁의 격화를 추동하고 있다.

라오스에서의 미제의 이러한 음흉한 책동은 최근 날이 갈수록 더욱더 로골화되고 있다.

라오스에서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 있는 무력 간섭과 정치적 모략 행동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미제는 라오스의 력사에서 벌써 두 번이나 중립 정부를 전복하였으며 계속 라오스의 중립을 반대하여 왔다.

1954년 인도지나 문제에 관한 제네바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미제의 이 지역에 대한 침략과 간섭 책동은 더욱 악랄화되기 시작하였다. 미제는 처음부터 인도지나에서의 전쟁의 종식과 월남과 라오스의 재통일을 원하지 않았다.

1957년 10월의 라오스 련립 정부 수립에 관한 협정에 기초하여 동년 11월에 라오스 련립 정부가 수립되였을 당시에도 미제는 애당초부터 라오스 인민의 민족적 독립을 달가이 여기지 않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제는 1958년 8월에 반동적인 사나니코네 도당을 사촉하여 수반나 푸마 정부를 전복하였다. 사나니코네는 그 다음 해 2월에 미제의 사촉 하에 제네바 협정과 비엔티안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였고 5월에는 파테트 라오 전투 부대들을 포위 공격함으로써 국내 전쟁을 도발하였다.

1960년 8월에 다시금 수반나 푸마 정부가 수립되였고 동년 11월에는 수반나 푸마와 수파누봉이 민족 통일 정부를 수립할 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자기의 침략 계획이 파탄되고 있음을 간파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이 때 노사방 도당을 사촉하여 라오스에서 내란을 도발케 하였으며 라오스에서는 또다시 류혈적인 동족 상잔의 참극이 벌어지게 되였다.

미제는 1,000 여 명의 군사 고문들을 끌어 들여 반역 도당 군대들을 직접 지휘케 하였고 장 개석 패잔병들과 타이, 비률빈, 남부 월남 군대까지 대대적으로 라오스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이러한 로골적인 침략 책동도 라오스

애국 력량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실패로 돌아 가고 말았다.

라오스 인민의 거대한 승리, 군사적 승리로 말미암아 미제와 노사방 도당은 1961년 5월에 부득이 정화 협정에 조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미제와 반역 도당들은 당시에도 정화를 군사력의 재정비를 위한 일시적인 휴식으로 역리용하면서 련립 정부 수립을 방해하는 한편 해방 지역에 대한 무장 공격을 부단히 감행하였던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은 미 제국주의가 력사적으로 라오스 인민의 민족적 통일과 자주권의 실현을 파괴하였으며 류혈적인 동족 상잔의 참극과 불행을 강요한 라오스 인민의 원쑤이며 동남 아세아에서 계통적으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침략 전쟁을 도발하여 온 장본인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러면 미 제국주의자들이 그처럼 집요하게 력사적으로 라오스에 대한 침략과 간섭에 매달리고 있는 리유와 그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2 차 대전 후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출현과 그 위력의 강화, 기타 평화 애호 국가들의 출현으로 하여 이 지역에서의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와 제국주의 세력의 지반은 결정적으로 무너졌으며 아세아는 허물 수 없는 강유력한 반제 력량으로 등장하였다. 이리하여 아세아에서 력량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여 제국주의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되였다.

아세아에서 변천된 새로운 력량 관계는 대전 후 미제의 세계 제패 계획 실현에 가로 놓인 결정적인 장애로 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제국주의 멸망을 촉진시키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였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제국주의 특히 미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급격히 붕괴되는 자기들의 식민지 체계를 수습하며 침략 전쟁의 새로운 지탱점들을 구축하는 데 필사적으로 매달리였다. 특히 인민 중국에서 혁명이 승리하고 그 위력이 반석 같이 강화되고 그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미 제국주의자들의 그러한 책동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악랄화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에서 《공산주의를 봉쇄》하기 위한 주되는 지역의 하나를 동남 아세아로 보고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특히 중화 인민 공화국, 월남 민주 공화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라오스가 미제의 《공산주의 봉쇄》 정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미제는 라오스에서 애국 력량을 소멸하고 자기의 반동 괴뢰 정권을 조작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라오스에 대한 침략적 야망을 실현하며 다른 편으로는 이 나라를 중화 인민 공화국과 월남 민주 공화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 기타 이 지역 평화 애호 국가들을 반대하는 병참 기지로 전변시키려 하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또한 라오스를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동남 아세아 중립 국가들과 아세아 평화 애호 국가들에 대한 인민 중국의 강력한 영향력을 막으며 아세아 중립주의 국가들을 쉽사리 전복하고 괴뢰 정권을 조작할 것을 타산하고 있다.

다른 한편 미제 침략자들은 라오스에서의 그들의 완전한 실패가 미제의 식민지 통치 하에 있는 나라들에 가져 올 련쇄 반응적인 결과를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라오스에서 완전히 패배하는 경우 그것이 남부 월남과 기타 미제 추종 국가들에 주는 반응은 비상히 클 것이며 동남 아세아에서 미제 식민지 통치의 완전한 붕괴를 촉진시키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의 파렴치한 간섭과 침략으로 말미암아 라오스 인민의 투쟁 앞에는 허다한 난관과 엄중한 시련이 놓여 있다.

그러나 오랜 반제, 반미 구국 투쟁에서 고귀한 경험을 쌓았고 단련된 라오스 인민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어떠한 침략적 흉계도 물리치고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리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바 없다. 라오스의 모든 애국 력량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도발 행동을 결정적으로 반대하여 궐기하고 있으며 침략자들과 반동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최근의 보도들에 의하면 중립파 내 반동 분자들의 많은 군대들도 계속 진정한 중립파 군대편으로 넘어 오고 있다. 실례로 제 4 락하산 대대에 속한 100 여명의 군대들은 반동적인 지휘관들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애국적인 중립파 군대들을 공격하는 것을 거부하고 애국적 군대편으로 넘어 왔다.

라오스 문제에 관한 1962년의 제네바 협정은 엄격히 준수되여야 하며 그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허용될 수 없다.

독립, 평화, 중립, 진보를 위한 라오스 인민의 정의의 투쟁은 전체 동남 아세아 인민들과 전 세계 진보적 인류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조선 인민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나라의 진정한 민족적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하는 라오스 인민의 투쟁을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적극 지지할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음흉한 책동으로써도 라오스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말살할 수 없으며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은 라오스 인민의 완강한 투쟁과 세계 인민의 규탄 앞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서적해제

자력 갱생하는 혁명 정신의 훌륭한 교과서

—항일 유격대원의 투쟁 실기 《연길 폭탄》에 대하여—

윤 창 주

최근 직업 동맹 출판사에서는 항일 혁명 투사 박 영순 동지의 투쟁 실기 《연길 폭탄》을 발행하였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회상기 《연길 폭탄》의 내용을 보다 심화시켜 구체적으로 서술한 이 책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 전통 학습과 혁명가적 기풍을 배양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훌륭한 교과서로 될 것이다.

가지가지 생동한 화폭으로 이야기된 투쟁 실기의 기본 사상은 자력 갱생하는 공산주의자의 고귀한 혁명 정신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조국이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원수 일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조선 혁명 앞에 부과된 영예로운 과업을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하려는 그들 앞에는 헤아릴 수 없는 애로와 난관이 가로 놓여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무장을 준비하는 문제는 간고성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맨주먹으로도 혁명 위업에 필요한 모든 것, 피복, 의약품, 수술 도구는 물론 높은 기술을 요하는 화약, 탄알 각종 저격 무기들도 만들어 냈다.

독자들은 이 책의 첫 머리에서 일제 침략자들의 야수적 살륙 만행에 항거하여 창과 칼, 도끼와 낫을 들고 일어나 싸우는 조선의 애국자들과 인민들의 불같은 의분, 혁명적 투지를 읽게 된다. 타오르기 시작한 이 혁명의 불'길은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의하여 령도되는 항일 무장 투쟁으로 발전한다.

항일 유격대는 한편으로는 적들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체의 힘과 지혜로 각종 무기와 탄약을 만들어 무장하면서 일제와 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저자는 항일 빨찌산들의 간고한 무기 제작 투쟁과 무기 수리 투쟁을 실기의 주되는 내용으로 하면서 자기 자신과 병기창 동지들의 체험을 실감 있게 서술하였다.

항일 빨찌산들은 현대적인 기계 설비나 공장 시설이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천고의 밀림 속에서 몇 개의 망치와 풀무를 가지고 계속 부절한 전투로 날을 맞고 보내면서 무기 제작 및 수리 투쟁을 진행한다.

그들은 원시적인 도창 무기 제작으로부터 후에 《연길 폭탄》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위력한 작탄 제작 투쟁을 전개한다. 광산 로동자들과의 긴밀한 련계 하에 소리 폭탄, 고추 폭탄, 돌쪼각 폭탄 등으로 폭발탄을 발전시키면서 끝내 적들을 삼'대처럼 쓸어 눕히는 정탄을 완성하기까지의 로정은 실로 힘에 겨운 영웅적 투쟁 과정이였다.

그러나 항일 유격대원들은 곤난 앞에서 굴복하거나 일시적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보다 새로운 무기 제작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화약 공급선이 차단되자 견인 분발하여 폭약을 제조하고 다시 탄환을 생산하였으며 련'이어 권총, 경기관총, 대형 작탄들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탄을 발사하여 적진에 일대 혼란을 일으키게 한 목포(木砲)까지 제작해 냈다.

저자는 포연 탄우로 뒤덮인 가렬 처절한 전투 마당에서 이처럼 총과 탄약과 폭탄을 생산한 항일 유격대원들의 위대한 힘과 지혜가 어데서 솟아 나왔는가를 감명 깊게 서술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작탄 제조의 초시기부터 무기 제작의 명확한 행동 지침을 제시 하시였고 항상 육친적인 배려를 돌려 주시였다.

그이의 가르침과 육친적인 손'길은 유격대원들에게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각종 무기, 탄약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하였으며 일각이 촉박한 전투 환경에서도 고장난 무기를 기동성 있게 수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듯 김 일성 동지의 가르침에 무한히 충실하였기에 항일 빨찌산들은 한 개의 작탄과 탄환, 한 그람의 폭약 가루와 한 자루의 총도 더 만들어 내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위험 속에 뛰여 들었으며 온갖 시련도 이겨 냈다.

그들은 때로는 몇 알씩 세여 먹던 보리쌀마저 떨어지면 풀과 나무 껍질로 연명하였으며 그것이 없을 때에는 맹물을 끓여 마시면서 풀무를 당기고 망치질로 기나긴 겨울 밤도 꼬박 밝혔다. 그런가 하면 령하 40 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도 홑옷을 입고 일하였으며 동상으로 하여 열 손톱이 다 곪아 빠진 손으로 밀려 드는 수십배의 적들과 교전하면서 작탄을 만들어 냈다.

이처럼 투쟁 실기 《연길 폭탄》은 우리의 보통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천만가지 간고성과의 굴함 없는 투쟁으로 일관되였다.

항일 유격대원들은 어느 누구도 일시적 실패와 난관 앞에서 락심하거나 동요하지 않았으며 오직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과 락관주의로 충만된 그들은 혁명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제때에 만들어 내였다.

실로 그들은 물과 풀, 나무와 공기가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서나 살며 바위에서 기름이라도 짜내고야 말 기세로 일하며 싸웠다.

저자는 권총 제작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인 총신 구멍을 뚫을 때의 장면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삼각형 칼날을 조포수에 의하여 이미 완성된 구멍 뚫기 기구에 맞추었다. 그리고는 축의 손잡이를 억세게 틀어 쥐였다…나에게는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무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

는 오직 하나의 굳은 신념이 불타고 있을 뿐이였다.

지동처도 넘어 가지 않을 강한 인내성과 하늘이 무너져도 꿈쩍하지 않을 만한 정신 통일이 요구되였다.

오직 이렇게 될 때만이 나의 팔과 나의 손은 기계처럼, 선반이나 볼반처럼 움직일 수 있였다.

…

나는…벽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계속 돌리기 시작하였다.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피 흘리는 동지들의 절절한 심정으로, 승냥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치받치는 증오로 나는 총구를 파 내였다.

이것으로 하여 뼈가 부서지고 살이 산산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도 끝내 참고 견딜 수 있었다…여덟 시간이 흘러 가자 드디여 25 센치메터의 강철은 단일한 원주로 관통되고야 말았다.》

바로 이러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은 오늘 우리의 남쪽 절반 땅에 둥지를 틀고 있는 미제 침략자들과 직접 대치하여 사회주의 지상 락원을 건설하며 자주적인 조국 통일을 이룩하여야 할 우리 인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투쟁 실기 《연길 폭탄》은 우리 당 제 4 차 대회가 제시한 기술 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근로자들을 힘 있게 고무 추동할 것이다.

항일 유격대의 병기창 대원들의 무기 제작 투쟁은 지식과 기술의 심연 속을 헤치고 나아가는 어려운 과정이였다.

학교 문전에도 가 보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인 그들에게는 지식이 참으로 밭았다. 그들에게는 종이도 연필도 없었고 실험 공구도 기계도 없었다. 그들은 지난날 고된 육체 로동에 혹사 당하던 동무들이였고 선반이나 볼반과 같은 현대적인 공작 기계를 만져도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현대적인 문명과 기술을 요하는 화약이며 탄환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고 강철에 구멍을 뚫어서 총신을 만들어 수백 가지 부속들을 깎아 권총, 기관총, 포 등을 만들 수 있었겠는가?

저자는 독자들 누구나가 다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물음에 대하여 뚜렷하게 해답을 주고 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 기술에 대한 신비성을 마스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항일 유격대원들의 지칠 줄 모르는 로력과 혁명적 전개력을 깊은 감동을 가지고 읽게 된다.

그들은 종이 쪼각을 무어 놓고 몽당 연필을 아껴 가면서 하나의 부속품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선과 원을 그리는 경우에도 모여 앉아 의논하며 집체적인 힘과 지혜로써 문제의 결린 매듭을 풀어 나간다.

그러다가도 새로운 문제에 부닥치게 되고 나아갈 방도가 막막할 때에는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김 일성 동지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심장 속에 아로 새긴다.

저자는 첫 기관총 제작에서 거의 피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였을 때 순간이나마 실망한 자신을 다음과 같이 부추켜 세운다.

《…그이께서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 내는 것도 서슴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지 않았는가!

그렇다! 오직 그를 끝까지 관철하는 길이 있을 뿐이다. 혁명이 그것을 요구하니 출로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또한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들은 오직 그 출로를 찾아 내기 위하여 혁명적 군중 속에 나가 배우며 유격대의 모든 생활에서 배우고 연구한다. 배우는 것—이는 병기창 대원들의 생활에서 단 하루도 떠날 수 없는 전투 임무와 같았다.

그들은 자신을 둘러 싼 혁명 군중과 모든 자연 조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막힌 고리를 풀기 위한 사업에 철저히 집중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초보적인 것으로부터 보다 높은 것에로 과학과 기술의 원리를 밝혀 나갔다.

《정으로 강철판을 제정된 치수에 맞추어 끊고 다시 홈을 파기란 무척 힘들고 참을성이 필요하였다. 매 한 미리 한 미리에 긴장되고 련속적인 메질이 필요한 것은 고사하고라도 정밀도를 보장해 내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였다. 우리는 지칠 줄 모르고…서로 지혜를 모아 거듭 탐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타격으로 인한 반작용의 발생, 마찰로 인한 열의 발생과 물체의 팽창 등에 대한 원리와 그 계산법을 하나하나 밝히고 풀어 나갈 수 있었다.》

무기 제작 투쟁에 바친 그들의 이러한 힘과 지혜는 실로 공산주의자들에게만 있을 수 있는 자력 갱생하는 혁명 정신의 고귀한 산물이다.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이 있음으로 하여 그들은 자그마한 단간짜리 토막집에서 보잘 것 없는 야장 도구들을 가지고 수십 수백 종의 가공구들을 만들어서 강쇠를 깎고 벼리였으며 무기 제작에 필요한 모든 기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항일 유격대원들의 이 고귀한 투쟁 정신을 배우고 실생활에 체현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기술 혁명의 요새도 능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일관된 이 책에는 또한 혁명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두철미 무장하여야 한다는 사상이 관통되여 있다.

이 사상은 오늘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우리 당이 제기한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관철하고 있는 우리를 무한히 고무한다.

투쟁 실기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 침략자들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것이 아니라 무장을 들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 수 없듯이 침략적 본성을 가진 원쑤는 우리의 벗으로 될 수 없다.

저자 박 영순 동지는 일제 침략자들이 살판치는 조국 땅 조선에서, 지어는 이국 땅 동만에서 살'길을 찾아 헤매였다. 그러나 살'길은 이 세상 아무데도 없었다. 그래도 그는 살아 보려고 왜놈들이 보이지 않는 심산 수해 속에서 산'짐승 잡이로 생계를 부지하려 하

였으나 어쩌다 잡은 짐승마저 놈들에게 죄다 빼앗기고 만다. 그는 드디여 혁명 조직의 영향을 받아 사냥총을 산'짐승들에게 겨누기 전에 두 발 가진 승냥이 일본 침략자들에게 돌려야 하며 오직 그 길만이 가장 값 있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인류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며 그 승냥이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 놈들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이 책의 중요 사상은 오늘 악독한 미제 침략자들과 맞서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 인민에게 실로 큰 교훈으로 되고 있다. 유격 근거지를 사수하기 위하여 한 손에는 낫과 호미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총을 잡고 유격대와 인민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여 투쟁하는 모습은 바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5 차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전 인민적 투쟁에 그대로 산모범으로 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박 영순 동지의 투쟁 실기 《연길 폭탄》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생활에서 하나의 훌륭한 교과서로 된다.

오늘 우리는 30 년전 항일 빨찌산들이 맨 주먹을 가지고도 혁명이 요구하는 긴절한 모든 것을 만들어 내던 때에 비한다면 얼마나 유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반석같은 자립적 민족 경제는 우리가 마음 먹은 모든 것을 아무 때나 척척 만들어 낼 수 있는 귀중한 밑천이다.

이 유리한 조건에서 항일 빨찌산들처럼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한 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한다면 기술 혁명의 계획인 7 개년 계획도 능히 앞당길 것이다.

근로자 제 10 호 (루계 제 224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 행 • 1963년 5월 20일 　 인 쇄 • 1963 년 5월 17일

ㄱ — 330312 　 값 40 전

W·8

서적 안내

간부학습

잡지 《간부 학습》은 매 시기 당 교양 체계의 요구에 따라 간부들 특히 간부 학습반 강사들에게 사상 리론적 및 실무적 방조를 줄 목적으로 발간한다.

《간부 학습》은 매 시기 간부 교양 사업의 방향과 간부 교양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의 의도를 반영하는 《지도 론설》, 당 사상 사업에서 제기되는 리론 실천적 문제들을 게재한다.

《간부 학습》은 《리론 보충 자료》, 《질의 응답》, 《토론》 란을 설정하여 강사들의 정치 리론 수준을 제고하고 그들의 학습 지도를 방조한다.

《간부 학습》은 또한 학습에서의 우수한 경험들과 단신, 보도 등을 통하여 강사들에게 실무적 방조를 준다.

또한 《간부 학습》은 당 정책에 대한 간부들의 집중 학습을 지도하는 강사들에게 방조 자료를 제공한다.

잡지 《간부 학습》은 본 사에서 발행한다.